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Vol.150 2018 March / April

Special theme

암치료, 한걸음 더 나아가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환자 곁에, 따스한 봄 같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김 경 현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매서운 겨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과 함께 물러가고, 따스한 봄 향기가 물씬 풍겨와 비로소 3월이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을 지나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오면 몸과 마음, 발걸음마저도 가벼워지겠지요. 매년 이맘때 맹위를 떨치는 미세먼지로 봄바람이 반갑지는 않겠습니다만 쾌청한 날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종 재해로 인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환자와 가족에게 믿음 주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올해 연중기획은 '의료적정성 평가 1등급으로 빛나다'라는 타이틀로,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등급을 받은 질환 항목들을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부터 환자의 손이 닿는 곳까지, 한양대학교의료원이 기울이는 노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가깝고도 먼 베트남으로 일주일간 파견을 떠난 의료봉사팀의 이야기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에 새롭게 터를 잡은 재활의학과와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봄처럼 열었던 마음을 녹이는 여러 콘텐츠를 담았으니 관심 있게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마다의 색으로 온 힘을 다해 활짝 피어나는 자연처럼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나아가는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따스한 봄처럼 환자분들에게 좋은 기운 불어넣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믿음 가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적정성 평가 1등급으로 빛나다 ❶

암치료, 한걸음 더 나아가다

34년째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암질 환은 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기도 하다. 암으로 인해 제2의 삶을 살아가는 환자들을 위해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암질환을 예방부터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환자들의 이해와 완치로 가는 여정을 돕고 있다.



Contents

- 02 **즐거운 편지** 환자 곁에, 따스한 봄 같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배재만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 08 **Love, Life** 한양대학교의료원 베트남 해외의료봉사

- 14 **Special theme ❶** 위암, 후회 없는 치료에 도전하다
- 16 **Special theme ❷** 대장암, 완치를 위한 체계적인 여정
- 18 **Special theme ❸**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유방암 치료의 동반자

- 20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EXID 솔지와 갑상선기능항진증
-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강태영내과
- 28 **Dr. Opera**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
- 30 **Dr. Movie**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감성으로 흥행하다
-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나혜석과 파킨슨병
- 34 **고마운 당신에게** 신경과 고성호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 36 **오늘의 건강강좌** 반월상 연골판 파열, 꼭 수술해야 하나요?
- 37 **Hanyang News** 베트남 한국군 격전지서 해외의료봉사 외
- 40 **언론 속 한양인**
- 42 **발전기금**
- 46 **한양캘린더**
-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8년 3월 5일 통권 150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6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수술 이후의 삶까지, 부인암 가이드러너

배재만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고치기 힘든 암’의 대명사인 난소암과 더불어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자궁내막암 등의 부인암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가족의 현재와 미래의 숙제다. 배재만 교수는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인생 중심의 치료 방식을 설계한다. 암환자의 생식능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이고도 통합적인 치료를 제안하는 그를 통해 고통과 불안 앞의 환자들은 희망을 발견한다. 수술 이후에도 환자의 삶을 보듬으며 동반자 역할을 자처하는 가이드러너, 배재만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윤진아 사진. 김재이





암 진단 순간부터 환자에게 ‘생식기능을 보존하려면 지금 난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자동결보존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임력 보존 방법이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즐거운 생명의 요람

자궁 양옆에 있는 난소는 임신에 필요한 난자를 성숙시켜 배출하고 여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다. 문제는 몸속 깊숙이, 골반 안에 있다 보니 질환을 제때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재만 교수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부인종양 분야의 명의(名義)다. 인터뷰를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분만실 앞에서 만난 배재만 교수는 “갑작스러운 출산 환자를 받느라 새벽 2시부터 깨어 있는 터라 행색이 엉망이다”는 너스레로 취재진을 맞았다.

“의대 본과 3학년 때 산부인과로 진로를 정했어요. 다른 과와 달리 산부인과 환자들은 새 생명을 안고 웃는 얼굴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도 더 클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원하는 유일한 진료과’라는 지극히 낭만적인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웃음) 인턴 시절 처음 제 손으로 아기를 받았던 날은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경 태어난 건강한 여자아이였는데, 숨 돌릴 틈 없이 바빴던 하루를 위로해준 최고의 생일선물로 기억합니다.”

발생 부위가 골반 안쪽인 부인암은 조금만 발견이 늦어도 복강 내 주변 장기로 전이되기 쉽다. 난소암은 간 주위 횡격막과

복강 내로, 진행성 자궁경부암은 인접한 직장 쪽으로 잘 옮겨 붙는다. 때문에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부인암 환자의 경우 초기부터 전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과 교수들과 공동 운영하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가동한다. 부인암 치료를 특화한 부인종양센터에서는 산부인과를 비롯해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비뇨기과, 핵의학과 등 관련 팀이 협진을 통해 완벽한 치료계획을 수립해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30대 초반의 젊은 러시아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내원한 적이 있어요. 이미 암세포가 방광까지 침범해 소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태였죠. 당장 방광을 떼어내지 않으면 출혈 때문에 죽을 정도의 상태였는데, 11시간 꼬박 수술해 인공방광을 만들고 질 성형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건강은 물론 성생활과 생식능력에도 문제없을 거란 말에 크게 기뻐하던 부부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각 과 의료진이 환자 몸속에 일어난 아주 작은 변화와 이상 증세도 놓치지 않고 치료계획을 결정한 결과다. 배재만 교수를 비롯해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의료진을 주축으로 향후 이 같은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11월에 ‘암 생존자 클리닉(가칭)’도 발족했다.

암환자 가임력 보존할 다학제 협진 시스템 가동

의학과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이 더이상 사형선고가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암은 치료 후에도 많은 숙제를 남긴다. 암 종별로 다르지만 부인암 분야도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생식기능은 급격히 감소하고, 이후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암 진단 이후엔 대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들어가는데, 항암제를 복용하면 난소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비단 암뿐만 아니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류마티스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진단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 또한 아이를 더 갖길 원하는 경우엔 모두 가임력 보존 치료가 필요합니다.”

외과 정민성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김석현 교수, 이비인후과 송창면 교수 등 최고의 의료진과 머리를 맞댄 배재만 교수의 하



루도 더욱 바빠졌다. 배재만 교수는 암환자의 생식능력 유지 및 장기적·통합적 설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각 과 교수들과 협진을 통해 암 진단과 동시에 치료계획을 세울 때 가임력 보존 방법도 같이 논의해 최적의 해법을 제공한다. 정기적인 모임 이외에도 환자 상황에 따라 수시로 미팅이 이루어진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수익구조를 생각하면 지속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암 생존자의 삶의 여정에 통합적으로 관여하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암 진단 순간부터 환자에게 ‘생식기능을 보존하려면 지금 난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자동결보존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임력 보존 방법이지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울고 있던 환자에게 그 말을 전하던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황망함과 절망으로 내내 울기만 하던 환자가, 의료진과의 미팅 후 안정을 찾고 몰라보게 강해진 모습으로 이후 치료에 임하더군요. 길고도 혹독한 전투가 될 것이라는 자각이 환자를 한층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환자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2주 정도 늦추고 난자 22개를 동결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니 일단 채취한 난자를 수정해두고, 나중에 22개의 임신 가능 기회를 저축해둔 셈이지요.”

암 치료에는 고도로 숙련된 의사들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힘든 치료과정을 잘 견뎌내야 할 환자의 굳은 의지와 믿음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관련 의료진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며 환자들도 몇 차례 만났어요. ‘우리가 앞으로 당신과 꼭 같이 갈 거다’, ‘암 극복 이후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지침을 알리고 환자별 맞춤 치료계획을 제시해주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환자 마음까지 치료하는 ‘부인암 파수꾼’ 될게요!

저출산 시대, 고위험군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단언하는 배재만 교수는 소아 청소년, 미혼 여성, 출산 여성, 중장년 여성 등 여성 생애 주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끝없는 항암치료와 수술, 전이, 재발을 반복하며 웃어도 웃는 게 아닌 환자들 앞에서 의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에 힘이 실린다. 환자를 향한 측은지심이야말로 ‘의사 배재만’을 더욱 분발하게 하는 힘이다.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외음부암, 질암, 융모막암 등 대부분의 부인암은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완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사 받고,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저희 의료진도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안팎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의료를 잇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베트남 해외의료봉사

2년 전, 부푼 마음을 안고 향했던 베트남 해외의료봉사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떠난다. 사람과 사람, 건강과 삶을 이을 의료봉사를 실천할 각오와 신념을 품고서 말이다. 올해로 8기를 맞은 함께한대 해외의료봉사팀은 '정확히 치료할 것, 마음으로 다가설 것, 배려하고 헌신할 것'이라는 다짐과 약속을 안고 지난 1월, 베트남 떠이빈 면으로 향했다. 글. 손부경 간호사 사진. 손화선 대외홍보팀 파트장





첫 진료가 있었던 날, 160명의 환자가 방문하여 때이빈면 보건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통역사 6명이 익숙하지 않은 의학용어를 열심히 설명했고, 봉사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원활히 마칠 수 있었다.

따뜻한 희망을 안고 베트남으로

1월 14일 새벽 5시 30분, 일주일간의 '함께한대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베트남 빈딘성 때이빈면으로 출발했다. 사전회의와 준비기간 동안 의료팀 모두가 설레는 마음과 함께 걱정도 많았다. 진료 과정, 장비와 물품과 같은 시스템적인 고민과 더불어 일주일간의 짧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긴 비행 끝에 파랑 박스 가득 의료장비와 물품을 챙겨 도착한 베트남은 낮 기온 24도 정도의 흐린 날씨로 우릴 맞이했다.

봉사활동 장소인 때이빈면은 호찌민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1시간가량 떨어진 끼논시에서 또 버스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마을이다. 이 지역은 월남전 당시 맹호부대와 베트남 시민군이 교전한 기록이 있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팀원들은 봉사지 근처에 위치한 위령탑에서 먼저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올렸다. 위령탑 뒤편에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큰 벽화에는 한국군 군복과 부대마크가 선명했고, 전쟁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침략의 역사를 겪은 우리가, 한국인에 대한 슬픈 역사를 가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더 큰 책임감과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된 의료인과 주민들

2년 전 봉사활동에서 환자들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고 의료진도 힘들었던 점을 반영해 올해는 지역 면사무소와 협의 하에 하루 1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효과적인 진료를 계획했다. 그러나 첫 진료가 있었던 날에만 160명의 환자가 방문하여 봉사팀이 위치한 때이빈면 보건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 통역사 6명이 곳곳에서 도움을 줬지만 의료진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익숙하지 않은 의학용어를 설명하기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다. 다행히 진료팀에 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진료 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안내해 주셨고, 팀원들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사교 없이 첫날 진료가 마무리됐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부터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환자들은 8시가 되기도 전에, 심지어 의료팀이 보건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건소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치과로,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예진을 통해 과거 병력과 현재 주 증상을 파악했다. 예진과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필요한 약을 처방 받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관리하도록 안내하였다. 치과에서는 발치를 진행한 환자가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 스케일링은 물론 치기공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보형물도 제작하여 수준 높은 진료를 이어갔다. 치기공사 이미경 선생님은 환자 중에 앞니가 3개 밖에 없던 여자가 새 치아 6개를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뿌듯했다며 그 미소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병동에서만 근무했던 나에게 하루에 300명이 넘는 인원을 진료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특이했던 것은 방문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짧은 일주일을 보냈지만
베트남의 환자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의 계기가 되었기를,
다음에 방문할 때는 더이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소망해본다.

환자들이 10세 미만의 소아이거나 70세 이상 고령 어르신이 많았다는 점이다. 현지 통역에게 물어봤더니 젊은 층은 대부분 농촌마을을 떠나 호찌민 등 대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 시골 마을 사정과 비슷한 것 같아 어르신들께서 느낄 외로움과 만성통증이 더욱 가까이 느껴졌다. 또한 2년 전 의료봉사 때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았거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베트남의 빠른 성장 속도를 반영하듯이 이번에는 본인의 질환을 인지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분들도 꽤 있었다. 하지만 아직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고, 자신의 질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 수준이 높지 않았다.

다행히 현지 혈액종양내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가 함께 진료하여 추가 검사와 정기검진이 필요한 환자는 지역 병원에 연계했다. 또한 올해 처음 함께 참여한 씨젠 의료재단의 협조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더 나아질 다음 봉사활동을 기약하며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며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못해드





린 것만 생각나 미안했던 환자도 있고, 볼에 붙인 하트 스티커 하나에 함박웃음을 보인 할머니의 표정도 잊을 수 없다. 태어나 처음 혈당을 재 보셨는지 채혈침에 깜짝 놀란 할머니, 우리가 배운 짧은 베트남어를 들으며 귀엽다며 손자처럼 대해 주셨던 어르신들 얼굴이 아직 눈앞에 아른거린다. 가정의학과 전진 선생님은 진료 후에 한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셨다며 웃는 얼굴로 진료실을 나왔다.

안타까운 환자들도 있었는데 소아청소년과 조상연 선생님이 만난 사시가 심한 4세 아이는 어머니가 경제적 사정으로 큰 병원에 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고 한다. 거동을 거의 못 할 정

도로 관절염이 심한 분도, 당뇨로 시력을 많이 상실한 분도 계셨다. 환경과 여건이 더 허락했다라면, 그리고 더 많은 환자와 함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죄송함도 미련도 많아 발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쌀국수’, ‘월남전’, ‘호찌민’ 정도가 내가 아는 베트남의 전부였다면,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깊고 친숙하게 알아갈 수 있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부심을 느끼고 힘차게 병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짧은 일주일을 보냈지만 베트남의 환자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의 계기가 되었기를, 다음에 방문할 때는 더 이빈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소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의료팀에서 일주일간 땀 흘리며 고생한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암치료, 한걸음 더 나아가다

34년째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암질환은 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기도 하다. 암으로 인해 제2의 삶을 살아가는 환자들을 위해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암질환을 예방부터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환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전문인력
구성여부

100점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80.4점

전체병원 평균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100%

98.1%

전문인력 구성여부



대장암 절제술의 완전성 평가 기록률

“검사결과 ... 암입니다” 드라마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배경음과 함께 의사가 주인공에게 암진단을 내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곤 한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도 암 선고는 전하기 힘든 질환명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의무 건강검진이 점차 확대되고 진단이 잘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치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정확한 진단 아래 각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맞춤형 진료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선정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아온 우수한 의료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진단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위암, 후회 없는 치료에 도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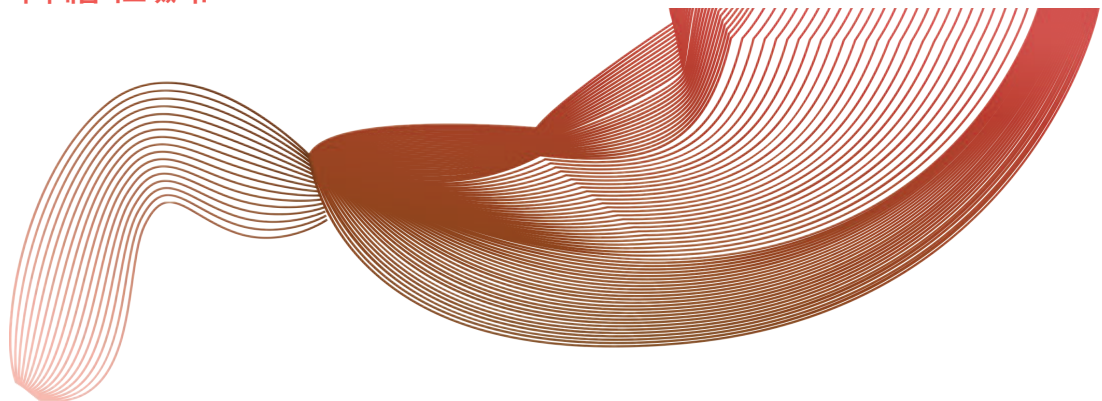
체중 감소, 소화불량, 구토, 속 쓰림 등 위암의 초기증상은 일상 생활 속 불편함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가볍게 넘길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식생활 문제가 있을수록 위암의 빈도는 높게 나타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위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체계적인 치료와 다학제 협진으로 환자도 의사도 후회 없는 치료를 이어가고,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우수한 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복강경 위 절제술 시행

90.3%

(위암 치료 환자 288명 기준)



글. 김민규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위암이란 위에 생기는 여러 암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위암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위암의 여러 원인 중 예방적 측면에서 본다면 흡연과 편식, 짠 음식, 술, 불규칙한 식사 등과 발암물질의 반복적인 노출을 피하고 육류와 우유,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을 자주 섭취하여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의 예후는 병기에 따라 매우 달라지게 된다. 1기의 경우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며, 2기의 경우 80~60%, 3기의 경우 50%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가암검진 권고안에서는 40세 이상 74세 미만의 남녀는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위암의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조기 위암 중에서도 매우 빨리 발견된 초기의 경우 내시경을 통한 절제술로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최선이다. 다만, 암이 매우 진행되어 제4병기로 판단되면 출혈, 천공, 폐색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항암화학요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위암의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의 경우 방법에 따라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로 나눌 수 있다. 개복 수술의 경우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약 20cm 이상의 절개창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회복도 느려 일상으로 복귀가 매우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0.5~1.2cm 크기의 4~5개 구멍을 이용하는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로 진행성 위암까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확대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적은 통증, 작은 상처, 빠른 회복, 낮은 합병증 및 사망률 등이 큰 장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대한 복강경 위장관 연구회(KLASS)가 주관한 연구에 따르면 복강경 위암 수술이 모든 병기의 생존율, 사망률, 합병증 발병률 등에서 개복 수술과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이 연구는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을 보고한 것으로 향후 진행성 위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의 적용은 매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위암 수술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조기 위암의 경우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행성 위암의 경우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환자들에서(고령 및 위험성이 높은 환자, 장막 침윤이 없는 환자)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본원에서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수술 치료를 받은 2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3.1세이며, 이 중 75세 이상의 환자들이 16.7%를 차지하였다. 특히, 복강경 위 절제술은 90.3%의 환자들에서 시행되었고 최종 병기는 제1병기 61.1%, 제2병기 16.7%, 제3병기 22.2%로 나타났다.

전체 288명의 환자 중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은 0.3%,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12.8%로 복강경 수술(10.9%)이 개복 수술(32.1%)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005$) 수치를 보여 주었다. 다만, 본원의 경우 위암이 매우 진행되어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합병증 면에서 개복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학제적 위암 치료

암에 대한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위암의 경우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내시경적 치료, 수술적 치료, 항암화학 요법 등의 여러 치료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 및 질병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암 전문가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술적 위암 치료 방향

진행성 위암의 수술적 치료 원칙은 충분한 절제연을 포함한 위 절제술과 더불어 D2 림프절 절제술이다. 이러한 수술은 고령 및 전신 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을 포함한 위험성 등으로 축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진행성 위암의 표준 수술 치료를 복강경 수술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축소 수술을 시행하였던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을 적용한 표준적 수술 치료를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축적하여 고령 및 동반된 질병이 많은 고위험 진행성 위암 환자들 또한 복강경을 이용한 표준적 수술 치료 및 보조 항암화학요법 이행률을 높여 생존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대장암, 완치를 위한 체계적인 여정

재발율은 높고, 초기 발견은 힘든 대장암.

한양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어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합병증 제로,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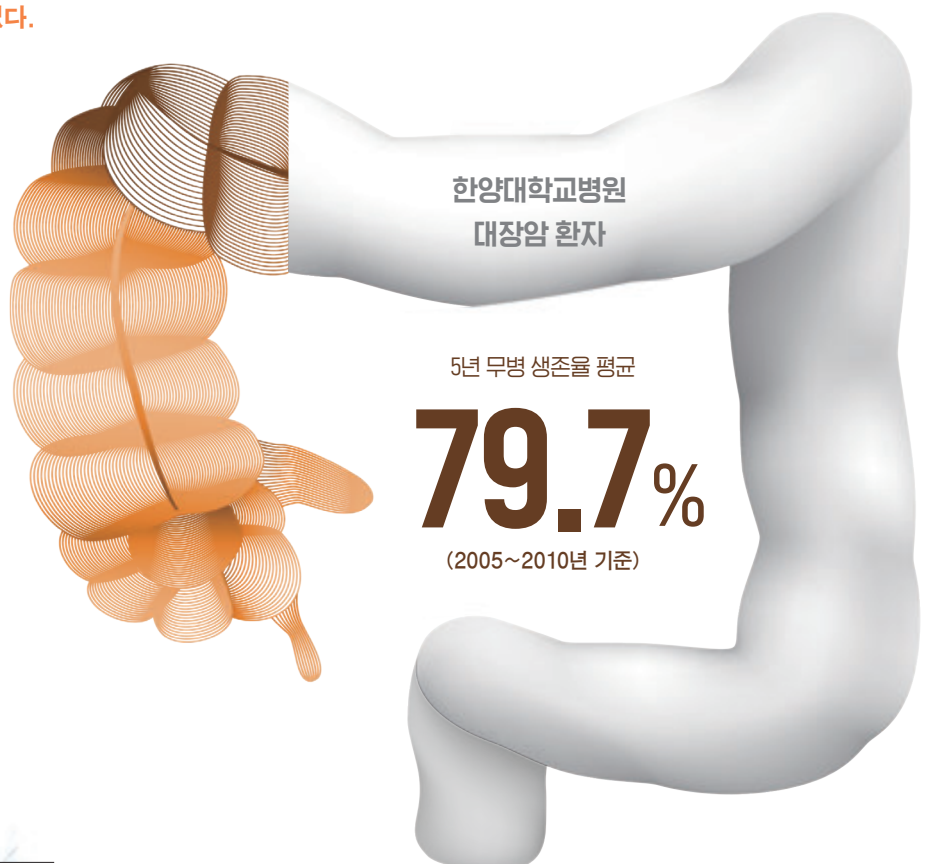
제로를 목표로 효율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이다. 더 나아가 최신 연구 개발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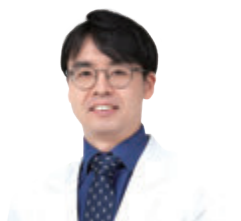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의 장점

한양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의 장점 중 첫째는 환자 편의에 맞춘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진료과 특성상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많은 만큼 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두 명의 대장항문 전문교수가 항상 교대로 진료를 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화, 목요일에는 이강홍 교수가, 월, 수, 금요일에는 안병규 교수의 외래 진료가 있어 대장암뿐 아니라 다른 항문질환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진료를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자는 것이 대장암센터 의료진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글. 안병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둘째로는 두 명의 대장암 교수가 환자를 보고 있음에도 한 명의 의사가 진료를 보는 것과 같은 표준화된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병원 내에서 교수마다 수술법과 치료 방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타 병원들과 달리 두 명의 교수가 단일화 및 표준화된 수술 기법과 치료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치료와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표준화된 치료는 언제 어떠한 경우, 어떤 의사에서도 동일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대장암의 완치를 위한 진단과 치료

대장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는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이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작은 용종에서 시작하므로 대장내시경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암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만일 대장암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수술 기법 및 수술 기구의 발전,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기법을 동원하여 완치의 기회가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근치적 수술이며, 이는 병소를 포함하여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림프절까지 광범위 절제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 병원은 병기가 높은 일부 진행성 대장암의 경우에 한해 고식적 개복술을 시행하나 대부분의 대장암에 대해서는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과 같은 최소침습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술은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조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수술방법이다. 또한 직장암의 경우 최신 수술기법인 괄약근간 절제술을 시행, 항문 보존비율을 높이고 영구장루 조성의 빈도를 낮춤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된 치료와 최신 수술기법의 도입으로 한양대학교병원 대장암 환자의 5년 무병 생존율은 2005~2010년 기준으로 1기 96%, 2기 84.3%, 3기 75.3%로 평균 79.7%를 보이는 데 이는 전국 각 병원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합병증 제로, 불만 제로를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는 수술 후 환자 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합병증 제로, 불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신체적인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암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장암 센터에서는 환자들의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대부분의 수술 환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조기 보행 및 경구섭취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금식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합병증 빈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환자의 조기 회복, 조기 퇴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환이다. 합병증 없이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완치의 기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또, 3명의 창상·장루 전문 간호사를 배치, 대장암 수술 후 장루를 사용하게 된 환자의 상처와 장루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감염과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고 환자 맞춤형 1:1 교육과 정신적 지지를 통해 환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암센터와 영양팀에서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대부분 겪게 되는 식이습관, 배변습관의 변화, 항암치료를 받으며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친절한 상담으로 회복기 환자들의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전진

한양대학교병원은 특히 대장암의 재발과 복막전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AFAP1이라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 소실이 대장암의 조기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e)라는 최신 유전자 분석기법을 이용해 복막전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를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는 장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통해 익힌 복막전이 환자의 선진 치료 기술인 '세포종적감퇴술 및 복강 내 온열화학요법치료(cytoreductivcy surgery with HIPEC)'를 도입하여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유방암 치료의 동반자

한양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의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평균 입원 일수와 진료비 부문에서는 동일한 종합병원 평균보다 오히려 적어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치료의 질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꼽히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이 실시하고 있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글. 정민성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여성성의 상실과 우울증 등 고려할 것들이 많은 유방암

유방암은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발병률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 등 일부 암들은 발생률이 줄어들었지만,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4%씩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한 해에만 19,219명의 환자가 진단을 새로 받았고, 인구 10만 명당 37.7명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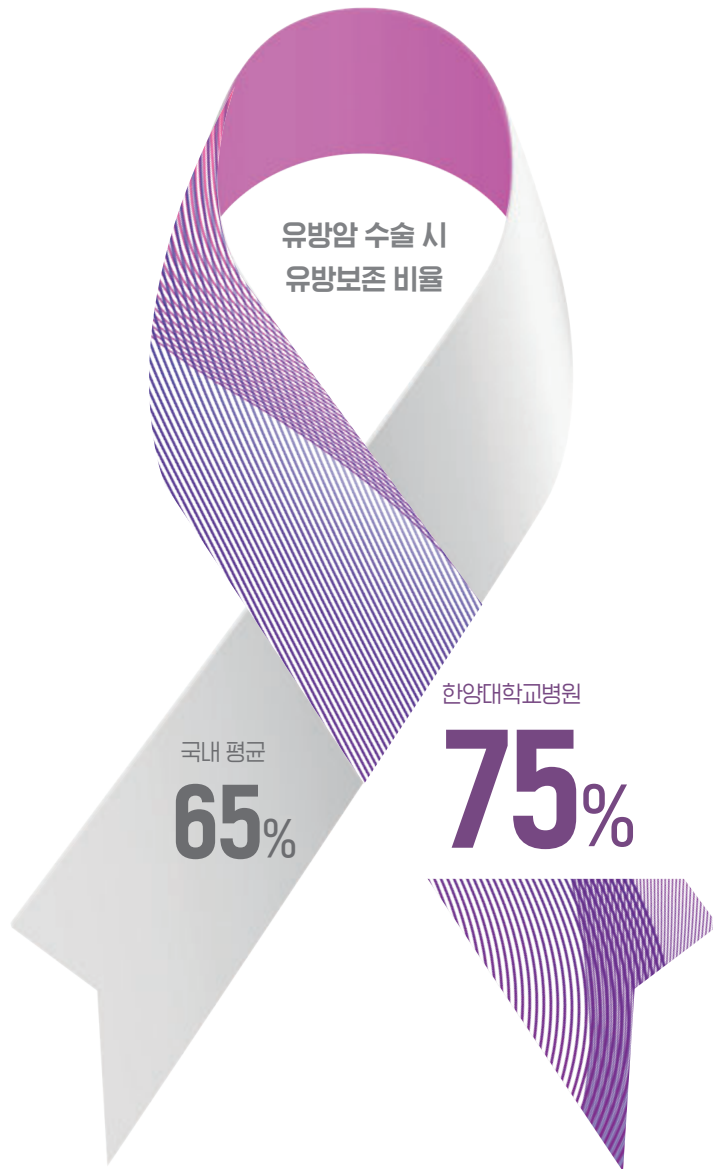
유방암 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과정 중 그리고 치료 이후에도 고려할 것들이 많다. 유방암은 처음 진단 받을 때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수술할 때는 유방 절제에 따른 여성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 림프 부종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도 전신보조치료를 받게 되는데, 항암치료를 할 때는 항암 부작용과 탈모 등 외모 변화에 따른 고충이 있다.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미혼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이후에도 임신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항암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고려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유방암 환자의 60% 이상에서는 내분비 치료를 최소한 5년 이상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이나 자궁내막 증식 등 부인과적인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다. 내분비 치료제인 아로타제 억제제는 관절통이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반대편 유방의 새로운 암 발생과 국소 전신 재발에 대한 지속적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2차 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도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유방암 환자는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치료 전후 신체적·정신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감당해야 하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종종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한양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의 장점

이처럼 다양한 유방암 환자의 지속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방암센터는 유기적인 다학제 시스템과 통합적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센터의 장점 첫 번째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빠른 영상학




적 검사와 조직검사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진단 이후, 2주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점 두 번째는 유방암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하면서도 여성성인 유방의 모양을 유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에서 유방 보존 수술이 가능하고, 크기가 비교적 큰 종양도 종양미용수술(Oncoplastic surgery)이나 수술 전 항암요법을 통해서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하므로 보전이 가능하다. 유방을 전절제 할 수 밖에 없는 일

부 유방암에서는 수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시행하여 미용적 만족도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시재건을 위해서 타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전원 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수술 이후 보조치료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자의 다양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 또한 암센터와 연계하여 항암 치료와 영양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매달 환우회 행사를 주최하여 환우와의 만남을 열고 있고, 다양한 환자 참여형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유방암 정보를 제공하며 1차 치료 이후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유방암센터는 수술이나 시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재활 및 치료 전후 관리 서비스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방암 치료 후 생길 수 있는 림프부종이나 어깨통증은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줄이고 있다. 또한 유방암 환자에서 진단과 치료 후 우울증의 빈도가 높고, 가족 간의 불화도 높은 편인데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산부인과에서는 모든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통한 2차적인 여성암 발병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고, 내분비 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젊은 여성에서의 가임력 보존 및 상담을 통해 치료 이후에도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이오 마커 연구와 암 여정 동반 프로그램

한양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에서는 유방암의 다양한 특성을 밝히고,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인 바이오 마커(Bio-marker)에 대해 연구하여 이를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과와의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 진단 시점부터 시작되는 암 여정을 함께할 가이드이자 동반자로서 수술과 약물치료 그리고 1차 치료가 끝나고 추적 관찰과 이후 건강관리까지 환자의 필요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여러 과 전문의가 능동적으로 케어하는 진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방암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이면서 차별화된 진료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가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핫이슈를 소개합니다.



환자 중심 재활 환경으로 ‘회복의 여정’을 함께하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갑작스러운 사고나 심각한 질병은 때로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긴다. 재활치료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신체를 다시 일상으로 되돌리는 ‘회복의 여정’이다. 환자 중심의 재활치료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가 지난 2017년 신관 준공과 함께 새 공간으로 등지를 옮겼다.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를 찾았다. 글 정라희 사진 김지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

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조력자

견지 못하는 이를 견게 하고, 팔을 쓰지 못하는 이의 팔을 움직이게 한다.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적’에 가깝지만, 실제 재활 과정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재활의학과는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남은 사람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는 1995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과 함께 개설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는 미국 대학병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재활의학과장을 지낸 이상건 교수님이 부임하면서 재활의학과와 함께 세웠습니다. 이후 최기섭 교수님이 바통을 넘

겨받아 기틀을 세우셨죠. 지금은 저와 장성호 교수가 함께 재활의학과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장인 한승훈 교수가 지난 역사를 간략히 설명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는 우수한 의료진을 바탕으로 재활의학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최첨단 체외충격파기를 비롯해 첨단 IT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 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맞춤형 게임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리햐마스터 도입으로 한 걸음 앞선 재활 환경 구축에 앞장선 것이다.

지난 2017년, 재활의학과는 한차례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준공이 그것. 2016년 초반 재활의학과와 신관 이전이 확정되면서, 재활의학과는 새로운 환경 조성을



모션 게임 치료 모습

최첨단 체외충격파기를 비롯해 첨단 IT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 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맞춤형 게임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리협마스터 도입으로 한걸음 앞선 재활 환경 구축에 앞장선 것이다.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기존 시설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도면을 검토했고, 여타 병원 재활의학과를 직접 탐방하며 벤치마킹도 마쳤다. 공사 기간에는 꾸준히 현장을 방문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최적의 환경 마련에 집중했다.

섬세하게 구축한 안심 환경

재활의학과에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아기부터 연로한 환자까지 무척 다양한 환자층이 방문한다. 신관으로 이전하면

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점은 공간 구분이다. 재활치료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공간을 분리한 것. 진료실 입구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출입문을 여닫을 때도 진료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했다.

“재활의학과 특성상 진료나 치료 시 신체 일부가 드러날 때도 있고 삼킴 장애라고 하는 연하장애의 경우 침이나 가래 등을 뱉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환자와 동선이 겹치면 서로 불편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신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의료 환경 마련에 가장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또한, 진료실과 진료실 사이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개별 진료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더욱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한편으로 소아작업치료실, 연하장애재활치료실, 전기치료실, 운동치료실, 전산화 인지재활치료실 등 더욱 섬세하게 공간을 구분해 최적의 치료 환경을 구축했다. 바닥에 설치한 6mm 쿠션 매트르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와 차별화 요소. 덕분에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장애인화장실과 수(水)치료실 등 재활의학과 신임 평가 기준에 적합한 치료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공간 개선은 물론 설비 역시 강화했다. 김현진 물리치료사는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보바스 테이블이 세 대로 늘어나



운동치료실에서 환자 케어 중인 재활치료사의 모습

환자들의 재활 환경이 한층 좋아졌다”고 말한다.

신관으로 이전한 재활의학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치료실 곳곳에 설치된 월오투(Wall O2: 벽면형 산소 및 석션 공급 시스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 오는 환자들은 뇌손상을 입은 중증 환자들이 많다. 산소포화도 95% 이상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받을 때도 멈춤 없이 산소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소통의 유지시간은 불과 30분 내외지만, 심도 있는 재활치료를 하려면 한 시간 이상 필요했다. 윤명희 작업치료실 팀장은 “월오투 덕분에 24시간 산소공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한결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이 같은 체계를 갖춘 재활치료실은 전국에서도 흔치 않다는 전언. 덕분에 치료사들의 자부심도 높다.

전문인 충원으로 특화 진료에 집중

신관 이전으로 환자 중심의 재활 환경을 구축한 재활의학과는 환자에게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로 한 차레 더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장성호 교수는 좁은 공간에서도 환자들의 보행과 동작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임상에 적용하고 있으며, 한승훈 교수는 연하장애 환자의 삼킴 동작을 카메라로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관련 문제를 지닌 환자의 진단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재활의학의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입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재활 분야를 ‘정밀재활’이라고 하는데요, 생명공학과 의공학 등 다른 영역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아이템을 재활 시스템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박재현 전문의가 부임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는 전문의 충원을 통해 기존 진료 영역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신관 이전이 하드웨어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라면, 전문성 강화는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일이다. 그 배경에는 환자의 회복을 기원하는 ‘진심’이 있다. 정성에 더한 실력으로 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그들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 🏥



스마트 글러브를 활용한 재활훈련



월오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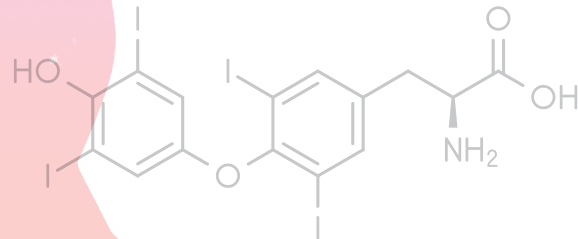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땀, 짜증 늘고 체중 줄면 갑상선 적신호 의심

EXID 솔지와 갑상선기능항진증

추운 겨울에 땀을 흘리고,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심장 두근거림이 느껴져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 갑상선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재발 확률이 높아 초기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 최근 유명인들의 투병 사실 공개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H Y P E R T H Y R O I D I S M

2014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5인조 걸그룹 EXID. '위아래'로 음반차트 역주행의 신화를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들이 2016년부터 피치 못할 사정으로 4인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메인보컬 솔지가 갑상선기능항진증 판정을 받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치료를 이어가던 그녀가 1월 10일에 안와감압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솔지 외에도 배우 이연걸, 성우 서유리 등 많은 스타가 갑상선기능항진증 투병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안구 돌출로 외모가 달라지거나 체중 감소,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는 점이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은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무기력, 하지마비, 근력 감소와 더위를 많이 타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목소리 변화, 음식을 섭취 시 이질감, 호흡 이상 호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목 부분에 자리한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한 후 체내

로 분비하여 인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분비량이 많아지면 체내 에너지 대사과 혈류량이 증가해 체온이 높아지며 얼굴이 빨개지고 덥고 살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 한다. 에너지 발생이 과다하므로 과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운동을 피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땀이 나는 등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한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료 인원은 23만 3309명이며 30~50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병 성별은 여성 환자 16만 7603명, 남성 환자 6만 5706명으로 여성 발병률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갑상선 관련 질환은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 병을 키우기 쉽다. 하지만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치료 기간도 길어 초기 관심이 어떤 질환보다 중요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정밀한 검사를 통해 치료 받는 것이 좋다. 🌐

갑상선 호르몬 생산 억제로 갑상선 기능 유지가 관건



이창범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갑상선은 약 15~20g 정도의 무게로 아주 작은 호르몬 분비 장기이지만 이곳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 에너지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 갑상선 호르몬은 열 발생을 유발하는데,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 분비로 인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보일러를 과하게 가동하여 몸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현상이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는 땀이 많이 나게 만들며 체중이 줄고, 심박수 증가에 이르게 된다. 심신이 지치고 무기력증에 빠질뿐더러 합병증에 의해 악화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으로는 그레이브스병, 중독성 다결절성 갑상선종, 중독성 갑상선종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며 우리나라의 경우 80~90%의 원인으로 구분되는 그레이브스병은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감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조합으로 생길 수 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진단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채혈검사를 통해 혈액 내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여 진단할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T4 또는 T3)이 과다 분비될 경우 생리학적인 음성 피드백으로 인해 TSH 수치가 저하된다. 혈액검사에서 항진증과 그레이브스병의 증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섭취율 검사를 이용하여 진단한다. 이외에 간질환이나 경구피임약, 임신 등의 영향으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T3 섭취율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치료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의 최선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여 정상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약제인 항갑상선제를 투여하는 방법과 방사성요오드 투여, 혹은 수술로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 약물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갑상선종이 없거나 크기가 작은 경우, 또한 30세 미만의 가임 여성 등이 해당된다. 약제를 투여하고 2주 정도 지나 증상 완화가 발견되며 추후에 호전의 단계에 따라 약제의 용량을 줄여가며 장시간 사용을 권한다.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의 장기 투여를 권장하고 있다.

호르몬제 복용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실시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방사선을 내는 요오드가 녹아 있는 물을 마시며 치료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치료법으로는 수술이 있거나 비용적인 문제나 드물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2차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이다.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믿고 찾는 우리 동네 류마티스내과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강태영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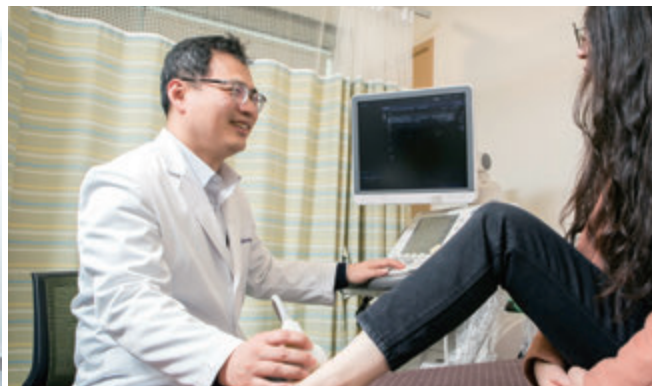
이유를 알 수 없는 질환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진료과를 찾아야 할지 몰라 종종 헤맨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도 한다. 병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가면역 이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질환이 대개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강태영내과는 류마티스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동네의원으로, 만성적인 류마티스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글. 정라희 사진. 김지원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다

강태영내과는 2017년 11월에 개원한 신생 의원이다. 신생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시설과 장비 모두 최신식으로 갖췄다. 골밀도 측정 장비와 풀 디지털 엑스레이(Full digital X-ray), 최신형 도시바 초음파 장비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영상 장비를 디지털화해 컴퓨터로 바로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다.

강태영 원장의 이력을 보면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14년간 근무하며 이론과 임상 두 측면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다.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근골격 초음파 레벨2 자격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에 등재되기도 했다. 류마티스내과 의사를 위한 근골격 초음파 지침서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류마티스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류마티스내과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명칭이 낯선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강태영 원장은 개원을 하면서 병원 홈페이지에 류마티스내과의 역할과 유래를 섬세하게 소개했다. 류마티스내과는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내과의 한 분야다. ‘류마(rheuma)’의 어원은 ‘흐르는 물질(substance that flows)’이라는 뜻과 관련 있는데, 류마티스 환자의 염증이 관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으로 흘러가는 현상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붙었다.

“근골격계질환 가운데 골절이나 종양처럼 수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질환은 류마티스내과에서 다룹니다. 어깨나 무릎, 손, 발, 척추 같은 관절과 관절 주위의 통증, 부종 등의 원인을 검사를 통해 찾아내고, 이에 따른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하는 곳이 바로 류마티스내과입니다.”

시너지로 빛날 한양대학교병원과의 협력

한양의대에서 의학박사를 받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에서 전임의 생활을 했던 강태영 원장이 개원을 준비하면서 한양대학교병원 인근인 상왕십리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에 가까웠다. 그에게 한양대학교병원은 친정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학술적인 부분에서나 진료 협력 등의 측면에서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이번에 개원할 때도 교수님과 동기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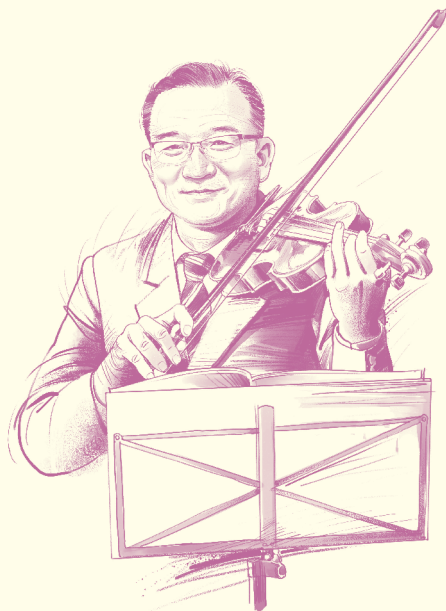
양대학교병원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해야죠.” 류마티스질환은 감기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병이 아니다.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아 의사와 환자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갖고 증상을 조절해가야 한다. 그렇기에 강태영 원장은 동네의 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응급한 상황에서는 큰 병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과거 다른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 루푸스 환자가 합병증으로 폐렴과 빈혈이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이라 류마티스병원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으로 급히 전원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의사회를 통해 응급실 당직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종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1차 관문인 동네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그 바탕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다.

“류마티스관절염은 환자마다 나타나는 양상과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병원에서 쌓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 수준은 높으면서도, 병원 문턱은 낮은 곳. 강태영 내과는 류마티스질환이 낫설어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갔던 환자들이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심도 있는 이론과 풍부한 임상 경험의 조화로, 강태영내과가 믿음직한 우리 동네 류마티스내과의 역할을 든든하게 감당해주길 기대한다. 🌟

낭만주의 연극의 초석이 된 빅토르 위고의 원작



Giuseppe Verdi Opera <Ernani>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

빅토르 위고의 원작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에르나니>는 베르디의 다른 작품에 비해 드물게 공연된다. 그 이유는 세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운다는 설정과 주인공 남자들이 사랑보다는 명예와 약속에 미친 듯이 집착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네 주인공 모두가 고난도의 아리아를 불러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이다. 오페라의 대본은 프란체스코 피아베가 썼으며 초연은 1844년 3월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원작인 희곡 「카스틸리아인의 명예(Hernani, ou l'Honneur castelien)」는 1830년 2월 프랑스의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첫선을 보였다.

초연과 함께 이 희곡이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이 작품 속에 고상함과 그로테스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총 5막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의 각 막에는 소재목이 붙어 있다(1막 국왕, 2막 산적, 3막 노인, 4막 묘지, 5막 결혼식). 위고는 서문에서 “고전주의 극의 규범은 이제 깨져야 하며, 새로운 세대인 낭만주의의 새로운 미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멸의 작품을 만드는 것은 바로 관객이라고 주장한 위고는, 공연에서 관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원작과 오페라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같지만, 위고 원작의 여주인공 도나 솔(Dona Sol)은 베르디 오페라에서 엘바라로 바뀌었다. 연극 제1막은 오페라에서 제1막 2장이고, 연극 제3막은 오페라에서 제2막이며 베르디의 다섯 번째 오페라가 되었다.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한 <나부코>가 베네치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무대에 올리는 첫 작품이 되었다. <에르나니> 초연은 <나부코>를 능가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초연된 해에 라 스칼라 극장을 비롯한 이탈리아 15개 극장의 무대에도 올려졌다. 같은 해 6월 빈에서의 공연 그 이후에는 국제적인 오페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페라에서도 여전히 벨칸토 오페라의 고난도 성악기교가 가수들에게 요구되지만 연속적인 독창 아리아에서 벗어나 인물 간의 대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베르디는 다른 작곡가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850년대 그의 다른 최고 인기작들의 특징을 미리 보여주리라도 하듯 주인공들의 갈등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점과 오케스트라 음악에서도 뛰어난 도약이 이루어졌다.

제1막 제1장 1519년 피레네 산맥 속 산적들의 거처 에르나니는 원래 아라곤의 백작 돈 조반니이지만 지금은 산적 두목이다. 국왕에 반대하는 모반자들이 산속에서 산적생활을 하며 실바 공작의 군대와 싸우는 중이다. 에르나니가 나타나 연인 엘비라가 삼촌인 실바 공작에게 강제결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산적들은 그를 도와 그녀를 납치하기로 한다.

제2장 실바 공작의 성 엘비라의 거처 엘비라는 원치 않는 결혼에 고민하며 에르나니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유명한 아리아 '에르나니, 날 데리고 도망쳐요(Ermani, involami)'를 부른다. 유모와 단둘이 있는 엘비라에게 변장한 국왕 카를로가 찾아와 연인이 되어 달라고 간청한다. 이때 에르나니가 나타나 결투를 신청하자 왕은 거부하고 때마침 방에 들어온 실바가 두 남자를 보고 경악한다. 실바는 칼을 뽑아 두 남자와 싸우려 하지만, 국왕의 시종이 나타나 변장한 사내가 국왕이라고 알리자 왕은 에르나니를 살려 보내고, 실바의 성에 목궂었다고 말한다.

제2막 실바성의 넓은 홀 엘비라는 에르나니가 전사한 줄 알고 실바와의 결혼에 동의한다. 전투에서 목숨을 건졌지만 순례자 차림으로 신분을 숨긴 채 실바의 성에 들어온 에르나니를 보고 오해가 풀린 엘비라는 함께 사랑의 이중창을 노래한다. 실바는 에르나니임을 알고서도 은신처를 제공하는데 국왕이 찾아와 에르나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실바는 손님에 대한 예의를 주장하며 거부한다. 그러자 국왕은 엘비라를 인질로 데려가고 에르나니가 은신처에서 나오자 실바는 결

투를 청하지만 에르나니는 국왕에 대한 복수가 먼저라며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실바에게 뿔피리를 주면서 언제든 이 뿔피리를 불면 그때 목숨을 내놓겠다고 약속한다.

제3막 카를 대제의 묘지 모반 음모를 안 국왕 카를로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선출 결과를 기다린다. 한편 모반자들은 국왕을 시해할 자를 뽑는데 에르나니가 그 일을 맡게 되자 실바는 그 권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한다. 예포가 울려 카를로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되었음을 알리자 카를로는 군사를 시켜 모반자들을 체포하고 귀족은 사형, 평민은 감옥으로 보내라고 명령한다. 에르나니는 자신도 세고비아와 카르도나의 군주인 백작이라며 죽이라고 하지만 엘비라가 자비를 간청하자 왕은 모두 사면하고 엘비라와 에르나니를 맺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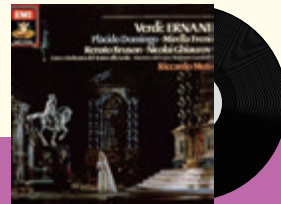
제4막 사라고사의 에르나니 궁전 엘비라와 에르나니의 결혼 피로연으로 화려한 가면무도회가 벌어진다. 밖으로 나온 에르나니와 엘비라는 행복에 겨워 사랑의 이중창을 노래하지만, 그때 실바의 뿔피리 소리가 들려오자 에르나니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서 엘비라를 궁 안으로 들여보낸다. 이때 무도회 가면을 쓴 실바가 나타나 에르나니의 목숨을 요구한다. 악을 가지고 돌아온 엘비라는 경악한다. 세 사람은 삼중창 '외롭고 비참하게(Solingo, errante e misero)'를 부른다. 실바는 단검과 독약 중 선택하라고 말하자 엘비라는 실바에게 눈물로 애원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에르나니는 절망 속에서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고 쓰러진다. 🎵

들 을 만 한 A l b u m



웨일즈 내셔널 오페라
[Decca, 1980]

지휘: 리차드 보닝,
루치아노 파바로티(에르나니),
조안 서덜랜드(엘비라),
레오 누치(돈 카를로),
버출라체(실바)



라스칼라 오페라
[EMI, 1982]

지휘: 리카르도 무티
플라시도 도밍고(에르나니),
미렐라 프레니(엘비라),
레나토 브루손(돈 카를로),
니콜라이 기아우로프(실바)



RCA 이탈리아나 오페라
[RCA, 1968]

지휘: 토마스 취퍼스
카를로 베르곤지(에르나니),
레온타인 프라이스(엘비라),
마리오 세레니(돈 카를로),
엔치오 프라젤로(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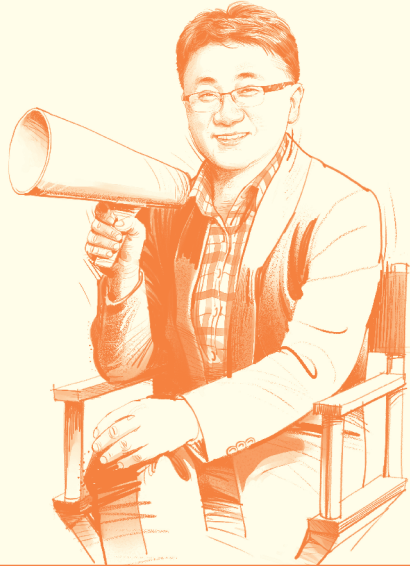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감성으로 흥행하다



올 겨 울 을 강 타 한 세 편 의 한 국 영 화

본과 1학년의 봄과 여름은 결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즐겁지 않았으며, 음울하고 눈물이 많이 나던 시기였다. 해부학 실습 도중 창문이 깨지면서 날아 들어온 매캐한 최루탄은 사람들을 공황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했으며, 학교 앞 보도블록은 교내 시위대의 백골단 투척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올 때, 그래도 너희들은 사람 목숨을 다뤄야 할 의대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며 수업을 강행하던 일부 교수님들과 나중에 역사 앞에 면목이 없으니 시위에 동참해야 한다던 일부 학우들 사이에서 나는 전형적인 의대생의 스탠스를 보였다.

1987년은 1년 전 촛불시위의 전형이자 시민의 힘을 최초로 각성시켰던 길거리 민주주의의 도래를 예고한 엄청난 의미를 가진 한 해였다. 1980년의 광주사태는 이미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역사적으로 해석되었지만 1987년의 함의는 왜 이제서야 표현되는지 모를 일이다. 당시 숙대 앞 남영동을 지나면서 느꼈던 위압감의 실체는 대학가 지하철 출구마다 자리했던 사복 경찰관의 불시검문에 의한 무소불위 공권력에 대한 까닭 모를 공포에 기인할 것이다. 1987년 1월 그 사건이 터지면서 남영동에 대해 향간에 떠돌던 소문은 실체를 지니게 되었다.

영화 <1987(2017)>은 한 세대 전 역사에 대한 기억을 찌릿한 모호하지만 현실과 이야기 그 중간 어디쯤 있을 법한 역사에 대한 최초의 문화적 담론이다. 영화는 박한철 열사에서 시작하여 이한열 열사로 끝맺게 되며, 강동원이 분하는 이한열 열사가 등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부의 누아르에서 2부의 로맨스로 장르가 변화한다. 영화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그러면서도 개연성 있게 목도해내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은 물론 누가 서사를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골수 반공주의자 대공처장에 대한 묘사는 제5공화국의 짧은 뉴스 스케치를 뒤로하고 임진각 망배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후 공포의 남영동 본실에서 의사에 의한 심폐소생술, 그 유명한 기자회견 장면, 망자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사람을 죽인 후 아무렇지도 않게 테니스를 치는 장면과 오버랩 되며 정권이 잉태한 거대 악으로서 저항과 척결의 대상이 되어 줄거리를 이끌어 나간다. 결국 그때그때 박처장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선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의미이다.

현실에 무관심하던, 알지 못하는 자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자, 대학생 연회를 바꾸게 된 계기는 시위를 주도하던 꽃미남 대학생 강동원

과의 만남이었고 그녀의 평탄치 않던 가정사 역시 박처장의 그것과 묘하게 맞닿아 있다. 영화는 박처장 이외에는 인물의 캐릭터 설명에 할애하지 않으나 이후 개개인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중첩되면서 어느덧 나비효과처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부르짖게 만든다. 박종철 열사의 유골은 얼어붙은 강 위에 ‘잘 가 그레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데이!’라는 절규와 함께 뿌려지는데 클로즈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다. 역사를 바꾸고 이끄는 현장에 일조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굵은 사실과 골목길처럼 꼬불꼬불한 노변정담 같은 이야기가 뒤섞여 30년 후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무지몽매한 인간은 결국 바보짓을 되풀이한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북한 1호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다면, 핵전쟁 발발이 지척에 놓이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우방이라 믿었던 나라들이 결국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잇속만 챙기게 된다면, <강철비(2017)>는 이러한 있을 법한 가상을 영화로 담아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장면을 볼 때, 이 영화가 <변호인(2013)>의 감독과 동일인이라 짐작하면 그의 엄청난 이념적 스펙트럼에 실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이데올로기이다.


영화에서 미국은 대통령도 아닌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엄청난 크기의 스크린을 통한 화상통화에서 활말을 다하는데, 그 이면에는 최대 우방 일본의 손익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뒤섞여 한국을 압박하는 표면상 우방국으로 등장한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직원 박철우와 CIA를 통해 막후교섭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중국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식채널을 이용하지 않으며 중화요릿집, 길에 내놓은 자동차(벤)에서 모의를 작당한다. 일본은 공항에서 작별을 고하는 중국대사와의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하는 것이 전부다. 어찌 보면 감독의 정치적 변절(진보에서 보수로)처럼 보이던 요소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매력적이다. 북한의 엄철우가 말한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우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대사는 결국 감독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파악된다.

두 명의 아재 배우들은 기묘한 케미를 보여주는데 임진각 근처에서 국수를 먹으면서 수갑을 풀어주는 장면에서 순식간에 비워지는 북한 철우의 그릇과 이를 보는 남한 철우의 눈빛, 북한에 두고 온 딸이 좋아한다는 GD의 노래 ‘삐딱하게’를 차에서 틀어주면서 헤드뱅잉을 하며 광분(?)하던 남한 아재 박철우의 귀여운 몸짓을 거부하지 못하던 북한 아재 엄철우의 갈 길 잃은 눈빛이다. 그러나 여배우가 클리셰에 국한된 서곡의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 남성 주도의 한국영화란 점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

또 다른 흥행작인 <신과 함께(2017)>는 판타지의 외피를 두른 ‘귀인’ 소방관 영웅 이야기에 군 의문사를 추가한 후, 익숙한 한국적 신파를 덧붙였다. 한국인이자라면 느낄 수 있는, 아니 느껴야만 하는 보편적 모성애, 가족애, 형제애란 것이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요된 집단 감성 내지 최면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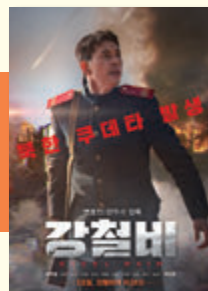
흥행에 성공한 영화와 완성도가 높은 영화에는 다소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 2시간 20분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웹툰의 설정, 등장인물을 그대로 차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지옥을 CG로 구현함에 있어 서양의 연옥을 참조하여 복제한 듯한 인상과 판관, 차사들의 정제되지 못한 언어들, 설득력이 떨어지는 귀인의 과거사들은 몰입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줄지었다는 것은 신파의 막강한 힘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리라. 2탄에 등장할 그 분이 못내 기대되는 것은 이정우의 힘만으로 극을 이끌어 가기에는 다소 힘이 부쳐 보이는 탓도 있을 것이다.

천만 관객의 재림은 기분 좋은 일이다. 다만 우리 자본, 우리 기술, 우리 제작진과 배우들로 할리우드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는 현상이 국수주의적으로 읽히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볼 만 한
Movie



1987(2017)



강철비(2017)



신과 함께(2017)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사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명작을 남긴 화가의
질현이 작품과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대를 앞선 종합예술인, 나혜석을 삼킨 파킨슨병



글. 김희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화가, 작가, 시인, 조각가, 페미니스트, 독립운동가, 언론인 등 나혜석이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말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녀는 시대변혁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남기며 모든 활동이 '최초'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정도로 파격의 연속이었다. 말년에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작품활동을 이어갔던 그녀의 신념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羅



蕙

錫



자화상, 미상

저것이 무엇이고, 1920



© 한국대안미술협회

언제나 최초로 불리는 여인

천재 화가 나혜석은 일본 도쿄 여자미술학교 유화과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뒤 1918년 귀국하여 화가, 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를 비롯, 1919년 3·1 만세 운동에도 참여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하여 주시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김우영과 결혼하였고 결혼식 청첩을 신문에 광고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선 최초로 유럽여행을 한 여인으로 기록되었으며 한국 유화를 정착시킨 최초의 전업 화가였다. 이 외에도 신사참배 거부, 일본식 성명 강요 거부, 시대의 냉대와 조소에 굴하지 않고, 예술가의 길과 독립된 여성으로서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나간다. 이렇게 그녀의 모든 행보 앞에 '최초'라는 타이틀이 반짝반짝 영원히 빛날 것만 같았다.

남편 김우영과의 이혼에 이어 연인과 이별 하면서도 꺾이지 않던 당당함이 51세에 찾아온 파킨슨병으로 조금씩 빛이 바래간다. 파킨슨병의 증상인 수전증에도 그림과 글 쓰기를 멈추지 않은 그녀. 이후로 병이 악화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자 오빠 나경석이 그녀를 인왕산 근처 청운 양로원으로 보낸다.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고통으로 심신의 병이 깊어졌고, 요양원을 탈출하고 들어가길 반복하다 결국 1948년 12월 10일 무연고자 신원으로 확인되면서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떨림으로 시작하는 질환

파킨슨병 환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 약 100만 명, 영국 13만 명, 한국은 10만 명 정도이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 연령은 대부분은 55세 이후이며 남녀 비율은 3:2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나혜석이 앓았던 파킨슨병은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도 특별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병리학적으로는 뇌 신경물질인 도파민을 만드는 중뇌 흑질이 파괴되면서 파킨슨 증상이 초래된다. 파킨슨병에서 부족한 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역할을 살펴보면 운동조절에 관여하고, 시상 하부와 작용하여 호르몬




수원 서호, 미상

몬에 영향을 미치며 뇌의 변연계에 영향을 주어 분노, 공포, 정서 및 기억장애에 관여한다. 대뇌피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일부 가족성으로 발병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뚜렷한 발병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파킨슨병이다. 원인을 알 수 있는 약물, 독성물질, 수두증, 뇌혈관질환 등인 경우에 이차성 파킨슨병이라 부른다.

파킨슨병의 진단은 전적으로 신경학 전문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뇌자기공명사진(MRI)을 찍으면 이상소견이 나와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전형적인 파킨슨병은 뇌사진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MRI 촬영은 이차성 파킨슨병과 파킨슨병 뇌손상 외에 다른 뇌 부위가 손상되는 파킨슨 플러스병의 감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일부 뇌 도파민 수용체에 대한 페트(PET)검사 혹은 심장검사를 통한 교감신경 침범 여부가 추가적으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가 잘되기 위해서는 발병 초기에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치료가 우선이며 약물치료에 증상이 잘 조절되거나 치료 시작 4~5년 후 약물에 의한 증상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삶의 질과 행동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면 뇌부위에 수술을 통한 뇌심부자극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증상을 호전시키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혜석의 말년에 드리웠던 그늘인 파킨슨병. 현대에도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그녀만의 도전적인 작품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된다. 시대를 앞선 비운의 예술인인 그녀의 작품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스페인 해수욕장, 1928



© 한국대외문화진흥원

한양대학교의료원 앞으로
도착한 감사의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골든타임으로 만난 감사한 생의 인연입니다

신경과 고성호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생의 문턱에서 만난 인연은 여러모로 절실함과 애뜻함을 남긴다. 빠른 처치를 요하는 뇌경색, 그 골든타임에서 만난 신경과 고성호 교수와 박상일님은 신속한 치료와 의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주고받았다. 퇴원 후 지금까지 감사와 신뢰의 인연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리. 이유정 사진. 김지원



고성호 교수님께

올해 초, 업무 중에 주저앉을 만큼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급체로 단정 짓고 휴식을 취했으나 구토 증상이 더해지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희 가족은 유독 뇌혈관질환 환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뇌경색을 앓았던 형님이 뇌리를 스치며 '가족력'이라는 단어에 가닿은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 구급차를 불러 곧장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건 첫 어지럼증이 시작한 이후 2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필요한 처치 이후, 고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질환명은 '뇌경색'이었지만 수술 없이 약물치료만으로도 처치가 가능하다는 빨리 병원에 온 저를 칭찬하셨지요. 얼떨떨하기도 하고, 덤덤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그저 교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입원 기간에도, 퇴원 후 지금까지도 한결 같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신 고성호 교수님. 빠른 처치부터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안정을 심어주시던 교수님이 없었다면 전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약간의 어지럼증이 남아 있지만, 교수님 덕분에 아무 탈없이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미션을 '금연'으로 꼽은 교수님의 바람처럼, 결심을 실천으로 옮겨서 건강한 삶을 끝까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늘 건강한 모습 그대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상일 드림



빠른 처치부터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안정을 심어주시던
교수님이 없었다면 전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상일님께

처음 박상일님을 뵈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뇌로 가는 혈관 중에 하나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뇌경색은 치료 시기가 중요한 질환 중 하나지요. 뇌경색 가족력을 인지하고 계신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찾아주셔서 제가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렸었지요. 그만큼 본인의 잠재 질환에 가진 관심과 판단, 빠른 행동이 환자분을 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일님의 뇌경색은 소뇌경색으로 팔다리 움직임이나 언어장애가 오진 않지만, 떨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뇌경색은 치료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부종이 오면서 중추 부위를 압박해 급성 심장마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에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셨기에 빠른 호전이 가능했습니다. 늘 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뇌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노력해주시면 현재 남아 있는 어지럼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수분섭취, 충분한 휴식, 금연과 금주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를 믿고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치료 때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뵈겠습니다.

고성호 드림

늘 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하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이 알기 쉬운 건강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 꼭 수술해야 하나요?

양재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란

반월판 연골은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이며,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자리하고 있다. 반월판 연골의 기능은 무릎관절을 보호하고 무릎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 주고 무릎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젊은 연령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대부분 외상의 결과다. 대개 무릎에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므로 스포츠 운동 중 손상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월상 연골 손상은 중년 이상의 나이에 외상 없이 발생하는데, 이는 일종의 퇴행성질환이다. 남자보다 여자에서 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에 누적된 부하와 스트레스가 병변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관절 전체에 빠근하게 나타나는 통증이며 이로 인해 걷거나 운동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슬관절 운동 중 갑자기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펴지지도 않는 관절잠김 현상이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뛰어내릴 때 힘이 빠지는 관절불안전증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Point.1

젊은 환자는 대부분 외상, 중년 이상 환자는 퇴행성으로 나타난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 치료 방법

반월상 연골 파열을 조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무릎에 반복적인 통증과 부기가 있으면 전문의에게 조기에 진찰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는데 보존적 치료 방법은 초기에 취하는 방법이다. 초기 급성기에는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정을 취하며 1~2주간 압박붕대, 부목, 석고붕대, 소염제 등을 사용한다. 급성 증상이 지난 후에는 관절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수술적 치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통증이나 잠김 또는 불안정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지속적인 신전제한 등이 있을 때 필요할 수 있다. 환부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내고 관절내시경을 집어넣은 후 모니터를 통해 손상된 반월상 연골을 보면서 치료하는 관절내시경 치료를 한다.

Point.2

수술 방법 외에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와 관절운동 병행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지난 2월 2일에 진행한 건강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월 건강강좌 소식은 46쪽 한양캐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 2018년 2월

한양대학교의료원

베트남 한국군 격전지서 해외의료봉사



본원은 지난 1월 15일~19일 베트남전 한국군 맹호 부대의 격전지였던 베트남 빈딘성 띠어빈으로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외의료봉사단은 치과 환경균 교수를 단장으로 치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의 의사와 간호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등의 의료진과 홍보 및 행정지원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박 5일간 현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의료봉사 지역인 띠어빈은 전쟁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장소이자 동시에 의료봉사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라며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본원의 설립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해외에도 널리 전파하고, 아픔이 있는 현지 지역 주민들의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는 봉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신년 사무식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2일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인 안심하고 믿음 가는 병원 만들기를 다짐하는 '2018년 신년 사무식'을 개최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지난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모두가 바쁘고 활기가 넘쳤던 한 해였다"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신종 감염병과 질병이 늘어나고 있지만 철저한 감염관리와 안전한 의료시스템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음이 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개소 1주년 심포지엄



본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개소 1주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양발달의학센터 센터장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주년을 맞이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다학제적 접근 및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관심 있는 분들의 정보 교류와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헌혈증 전달식 진행



본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동관 8층 제2회의실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현 병원장, 조영완 운영지원국장, 윤영선 간호국장, 김종수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진정한 나눔 문화와 사회공헌을 위해 꾸준히 소중한 헌혈증을 기증해 주시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기증해주신 헌혈증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제7회 감염관리 주간행사 개최



본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고자 지난해 12월 22일 본관 3층 강당

에서 '제7회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병원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많이 있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장소"라며 "이번 행사에서는 감염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서들인 병동과 특수부서 직원들이 감염관리 퀴즈의 달인과 Best Clean Hands 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감염관리에 밀접한 직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병원 내 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신규 간호사 첫돌잔치 행사



본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입사해 첫돌을 맞이한 109명의 간호사를 위한 '2017 신규 간호사 첫돌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사 후 만 1년을 넘긴 신규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하와 격려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축하 영상 메시지와 동료 및 선배들에게 감사편지, 케이크 커팅,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연수교육 우수교육기관 선정



본원은 지난해 12월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18년도 연수교육기관 대상 설명회 및 우수교육기관 시상식'에서 '연수교육 우수교육기관' 인증패를 받아 진료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됐다.

이광현 병원장은 "병원은 환자에 대한 의료가 펼쳐지는 현장과 동시에 연구와 교육이 병행되는 장소이다"라며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한 사람의 참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에도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더 좋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훌륭한 의료인을 지속해서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6회 QI 경진대회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31일 본관 3층 강당에서 기본에 충실한 환자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제16회 QI 경



진대회'를 개최했다. 김석현 QI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총 9개 팀이 참가해 지난 1년 동안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본원은 환자의 안전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표로 매년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에 충실하여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Y 인당 재생의학 줄기세포 연구센터, 프로테옴텍과 양해각서 체결



본원 외과 최동호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HY 인당 재생의학 줄기세포 연구센터'는 지난 1월 18일 서울가산디지털단지에서 (주)프로테옴텍(대표 임국진)과 인공 간 관련 기술제휴를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Y 인당 재생의학 줄기세포 연구센터'는 화합물 유래 인공 간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주)프로테옴텍은 바이오 인공 간에 장착할 인공기능 기반 실시간 센서를 개발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규 간호사 첫돌잔치 행사



본원은 1월 30일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입사 이후 첫돌을 맞이한 80명의 간호사를 위해 '2017년 신규 간호사 첫돌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사 후 만 1년을 넘긴 신규 간호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호사, 의료진 및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케이크 커팅, 선물 증정,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년 시무식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2일 12층에 위치한 사랑의실천홀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2018년 신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재민 병원장은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로 신관 준공, 심장혈관센터 개소, 지속적 본관 리모델링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5일에는 재활의학과 장성호 교수가 '안전하게 운동해서 건강해지자', 2월 2일에는 정형외과 양재혁 교수가 '무릎 연골판 파열, 꼭 수술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강의했다.

제1회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워크숍



본원은 지난해 12월 15일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1회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결과 및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자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본원 및 남양주 한양병원, 구리시 보건소, 남양주시 보건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QI 경진대회 개최



본원은 지난해 12월 22일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김재민 병원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린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본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등 대부분의 항목을 우수 판정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2018년 개원의 연수강좌



본원은 지난 2월 11일 한양종합기술원(HIT)에서 '관절염의 실용적인 진단과 처방: 근골격계질환

의 명의 되기'를 주제로 '2018년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배상철 병원장은 "올해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본원이 개원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기념해 임상에서 관심이 높은 6개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강의와 토론을 접목한 '명의를 처방전'이라는 강좌에서 경력과 경험이 탁월한 '명의를'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개원의 여러분들과 최신 정보 등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국제병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감사패 수상



본원은 지난 1월 12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 의료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본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환자자와 보호자 및 동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관광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인물 동정



김용주 교수,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차기 회장 선출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용주 교수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최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이다.



고옹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옹 교수가 최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배상철 교수,
한국과학기술훈림원
정회원 선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이어 1월 12일 국내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훈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배상철 교수는 류마티스질환 분야에 있어, 정밀의학의 기반이 되는 임상-유전 역학 연구와 혁신적 진단 및 치료 연구의 세계적 연구자로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지식영학술상,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 최우수임상연구자상, 대한의사협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대한류마티스학술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오재원 교수, 『필하모니의 사계 II』 개정판 출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의 저서 『필하모니아의 사계 II』의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로써 총 365곡을 엮은 『필하모니아의 사계 I, II, III』 전 3권이 초판 후 12년 만에 완성되었다. 12년 전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 클래식 칼럼 연재를 시작으로 2008년 3월부터 <의사신문>에 <클래식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여 2010년 『필하모니아의 사계』가 출판되면서 그해 교육부 청소년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여러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점에서 문화예술부분 Top 10에 진입했던 알찬 책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인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 사보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익한 의학 정보와 더불어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 전달의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7년 12월 ~ 2018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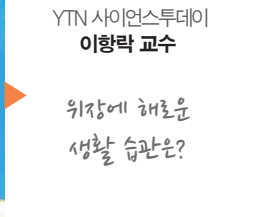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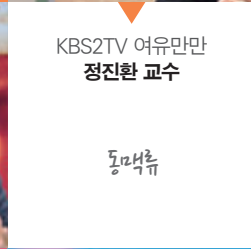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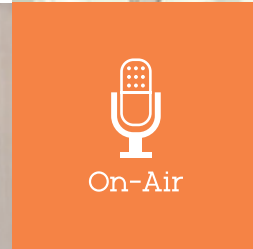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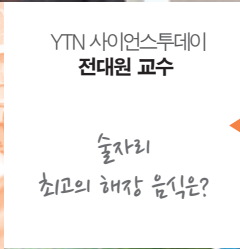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현영 교수

소리 없이 뇌를 망친다!
소혈관질환



KBS1TV 101세의 프러포즈
노성원 교수

불면증



한양대학교병원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1R [생생라이프]/ 12월 2일/ 건강하게 삽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KBS1R [생생라이프]/ 12월 2일/ 천식과 COPD **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1TV [건강혁명]/ 12월 13일/ 치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KBS1TV [건강혁명]/ 12월 20일/ 치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2회), MBC [생방송 오늘아침]/ 12월 14일/ 치매도 완치가 가능하다? **전대원 소화기센터 교수** YTN [사이언스투데이]/ 12월 14일/ 술자리 많은 연말 대비! 최고의 해장 음식은?, YTN [사이언스투데이]/ 12월 19일/ 숙취해소에 초코우유 괜찮나요?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12월 20일/ '단서를 찾았다'故 김주혁 사망 미스터리. 심근경색, TV조선 [스페셜]/ 12월 23일/ 여성호르몬을 사수하라. 심근경색 **김영서 신경과 교수**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12월 20일/ '단서를 찾았다'故 김주혁 사망 미

스터리. 뇌전증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KBS2TV [여유만만]/ 12월 29일/ 시간 노화를 잡아라, KBS1TV [101세의 프러포즈]/ 12월 31일/ 불면증 **이현주 소아청소년과 교수** MBC [뉴스데스크]/ 1월 5일/ 병원에서 10개월, 어린이집은 3살 반?... "이른둥이" 나이 고쳐야 **김현영 신경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9일/ 소리 없이 뇌를 망친다! 소혈관질환 **안희창 성형외과 교수** KBS2TV [제보자들]/ 1월 15일/ 51세 순임 씨의 간절한 소망. 신경섬유종 **이향락 소화기내과 교수** YTN [사이언스투데이]/ 1월 18일/ '속 쓰릴 땐 우유'... 위장에 해로운 생활 습관은?, YTN [닷컴탐구생활]/ 1월 23일/ '속 쓰릴 땐 우유'... 위장에 해로운 습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진혁 이비인후과 교수** KBS1TV [101세의 프러포즈]/ 1월 14일/ 코질한 **정진환 신경외과 교수** KBS2TV [여유만만]/ 1월 19일/ 동맥류

2017년 12월 14일(목) 건강 B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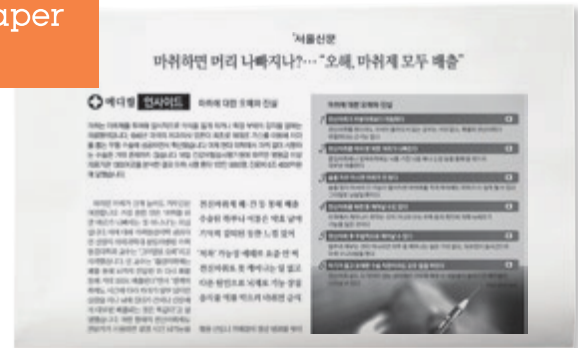
2017년 12월 18일(월) 의료/보건 D03면



2017년 12월 19일(화)



2017년 12월 19일(화) 건강 23면



한양대학교병원 임영호 심장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14일/ 심장마비 사망자 10명 중 3명... 흉통 등 전조증상 없다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14일/ 숙취해소제, 음주 30분 전에 드세요 **김동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19일/ [메디컬 인사이트] 마취하면 머리 나빠지나? 오해와 진실 **임한웅 안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19일/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왓슨, 빛과 그림자, 서울신문/ 1월 15일/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유전자 수술 시대, 조선일보/ 1월 23일/ 생리식염수로 눈 세척? 미세 먼지 잡으려다 눈 다친다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28일/ [카드뉴스] 당뇨병 환자의 신발 고르는 법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경제신문/ 1월 5일/ 10대 31% '폰질' 안 하면 금단증세...그러다 '스모비' 될라, 중앙일보/ 1월 16일/ "남편 냄새 맡으면 스트레스 수치 떨어져", 조선일보/ 1월 16일/ 남편 냄새 맡으면 스트레스 줄어든다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월 11일/ 아동학대 받았던 사람, 심혈관질환 위험 높다 **김희진 신경과 교수** 조선일보/ 1월 17일/ 간밤에 무슨 꿈 꾸셨나요? 꿈이 알려주는 건강 상태, 조선일보/ 1월 30일/ [소소한 건강 상식]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잠꼬대 하는 까닭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국민일보/ 1월 27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책] 방역 매트리스·커튼 의무화... 대피공간 마련 필수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헬스조선/ 1월 29일/ 한 달 남은 봄... 건강 미리 챙겨 산뜻하게 맞이하자 ①, ②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헬스조선/ 12월 1일/ '헬스조선 빅 퀘스천' 코너 술이 과연 몸에 독(毒)인지 약(藥)인지에 대한 전문가 8인의 자성격론, 조선일보/ 12월 14일/ 술 자주 마시면 주량 늘어날까? **김지은 감염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14일/ 패혈증 사망률 30%인데... 감기로 오해해 방치하기도, 조선일보/ 12월 22일/ 패혈증 사망자 5년 새 2배로 증가... 사망 느는 이유는? **김재민 신경외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18일/ 첨단 시설 갖춘 신관... 심혈관 응급시술 최신 시스템 도입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베이비뉴스/ 12월 18일/ 완모는 6개월이지만, 모유는 2세 이후에도 도움, 베이비뉴스/ 1월 16일/ 비타민D 보충은 생후 2개월 되기 전부터 시작해야 **최호진 신경과 교수** 국민일보/ 12월 19일/ VR·혈액·콧물 검사로 치매 예측한다... 2019년 '치료제' 나올 듯, 한국일보/ 1월 22일/ 더 요원해진 치매 정복, 국민일보/ 1월 24일/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 관련 표준화 연구 필요 **고성호 신경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25일/ 현대판 불로초 찾아라...세계적으로 327건 임상시험 진행 중, 중앙일보/ 12월 26일/ 노화도 고칠 수 있는 질병... 냉동인간 150명 부활 기다린다, 파이낸셜뉴스/ 1월 11일/ 신개념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2상 순항 **이승욱 비뇨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1월 7일/ 증상 없는 침묵의 병...불임 등 합병증 **박한철 심장내과 교수** 조선일보/ 1월 8일/ 급성심근경색 시술 사망률·감염증 발생률 '0%'... 첨단 장비 도입도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월 17일/ 노인 30% 이상이 겪는 '겨울 낙상' 예방 운동법 5가지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차상석



김병제



최석주

[1천만 원 이상]



안태환



하현영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2017년 12월 ~ 2018년 1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준현 압구정안과의원	박태선 호흡기내과	오영하 병리과	이창범 내분비내과					
		고란주 동관7층	김지영 핵의학과	박혜경 코코이비인후과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이창우 정형외과					
김옥인		고병우 압구정안과의원	김지은 감내내과	박환철 심장내과	오정환 희명병원	이창훈 정형외과					
김형수 한양증권		고성호 신경과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박현겸 외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김형운		공상훈 경영감사팀	김창선 응급의학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유교상 소화기내과	이화준 Q팀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곽인영 광이비인후과의원	김철웅 정형외과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송병주 하나안과의원		구선완 원무팀	김춘성 고객	반은주 제3중환자실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임완예 원목실					
오상우		국은영 간호국	김충현 신경외과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윤명희 재활의학과	장성호 재활의학과					
윤여옥 태암내과의원		권순주 신생아중환자실	김태완 안과	백운철 병리과	윤여필 물류팀	장재선 간호국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	김태형 호흡기내과	변순현 의무기록팀	윤원구 윤정형외과	장지희 건강관리팀					
정미숙 한양대학교병원		김경화 본관11층	김한준 외과	서승표 정형외과	은창수 소화기내과	장태원 직업환경의학과					
정효경 정효경성형외과의원		김금옥 중앙공급실	김현욱 의료정보팀	서우영 정형외과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전미선 간호국					
		김남기 재무팀	김희숙 약제팀	서정심	이경식 감염관리팀	전석분 중앙공급실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대희 대외홍보팀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경희 본관6층	전용철 소화기내과					
		김도윤 정형외과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성민철 안과	이광현 정형외과	전우재 마취통증의학과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동섭 KD밝은안과	노선균 흉부외과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규용 신경과	정경희 본관9층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문성 김문성이비인후과의원	노정환 병리과	손한숙 약제팀	이두연 정형외과	정규성 정형외과					
김민선 한양대학교병원		김미혜 내과계중환자실	류기영 산부인과	송종훈 정형외과	이민자 신경과	정미선 원무팀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민규 외과	류제일 신경외과	신대현 상쾌한이비인후과	이상훈 이상훈이비인후과의원	정수경 간호국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봉유 원무팀	명동안과의원	신동한 원무팀	이성필 정형외과	정우성 새음병원					
박인범 시원한이비인후과		김승현 신경과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승욱 비뇨기과	정재운 소화기내과					
유연희 닥터유이비인후과		김양욱 신생아중환자실	문홍상 비뇨기과	신용운 안과	이승환 이비인후과	정재호 이비인후과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김영보 홍보팀	민경환 병리과	신우종 마취통증의학과	이양섭 물류팀	정재홍 정형외과					
이웅준 이웅준이비인후과의원		김영애 한양대학교병원	박기철 정형외과	신정철 성남이안과	이영석 정형외과	정진환 신경외과					
장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김영호 정형외과	박동우 영상의학과	신정훈 심장내과	이유경 영상의학과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정진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옥중 물류팀	박성욱 원무팀	신창식 신창식 이비인후과	이은희 본관11층	조명희 심장센터					
한현수 한양대학교병원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예수 정형외과	신태양 정형외과	이장현 성형외과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	박용미 본관6층	심경아 본관11층	이정일 정형외과	조아라 영양팀					
5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김우길 시설팀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심재향 통증의학과	이제인 약제팀	조영아 소통의원					
		김운용 기획팀	박원희 치과	심지훈 정형외과	이종 교육연구팀	조영완 운영지원국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		김윤영 치과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안치원 응급의학과	이종숙 감염관리팀	조영진 본관7층					
강민호 안과		김이석 정형외과	박주원 의무기록팀	양정자 원무팀	이종희 본관5층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김지혜 소아청소년과	박지호 간호국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주학 심장내과	조현진 Q팀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김정수 피부과	박찬혁 소화기내과	염종훈 마취통증의학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조희운 안과					
강창남 정형외과		김주형 본이비인후과의원	박창구 시설팀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이진규 정형외과	채영림 재무팀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권난희	영양팀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종식	흉부외과	박경미	비뇨기과	배순석	수술실
최도전	본관8층	권미화	호흡기내과	김선영	2층내과	김창금	영양팀	박경숙	간호국	배은희	보험심사팀
최미경	간호국	권연희	영양팀	김선영	재무팀	김창복	홍보팀	박경희	중앙공급실	백형정	약제팀
최민영	외과	권오균	인사총무팀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철한	원무팀	박근배	보험심사팀	백혜연	수술실
최승석	성형외과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김성애	본관17층	김초름	본관5층	박명호	환자이송반	변다솜	본관10층
최완식	새로운정형외과의원	권은진	이비인후과	김성철	병리과	김춘애	영양팀	박미숙	영양팀	서명진	주사실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권혁천	고객지원팀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태근	병리과	박미순	원무팀	서병갑	영상의학과
최준석	탐이비인후과의원	권현숙	본관5층	김소란	본관10층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미옥	교육연구팀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소연	인공신장실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상혁	영양팀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최충혁	정형외과	김경수	본관6층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최혁중	응급의학과	김경숙	항암조제실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현주	고객지원팀	박선영	원무팀	서승희	본관9층
최호진	신경과	김경실	본관5층	김순식	노동조합	김현주	고객지원팀	박선영	제3중환자실	서영남	본관8층
최홍용	비뇨기과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서영은	본관5층
하루미	간호국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아름	본관5층	김현창	물류팀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서현주	진료협력팀
한동수	소화기내과	김규식	비뇨기과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현희	2층내과	박소은	영양팀	설명길	의료정보팀
한명훈	신경외과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애경	본관20층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수미	신생아중환자실	성경희	본관7층
한상웅	신장내과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형석	약제팀	박수정	본관9층	성명순	사회복지팀
한승훈	재활의학과	김기석	내시경실	김연주	병동서무	김형주	수술실	박순구	안과	성혜윤	본관8층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김나영	본관18층	김영미	이비인후과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연희	수술실	손영성	본관9층
홍성숙	내시경실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영선	본관5층	김혜원	본관11층	박용범	기획팀	손진석	국제행정지원팀
홍의호	핵의학과	김도와	내시경실	김영신	치과	김황룡	진료부	박유정	감염관리팀	송명선	본관10층
황규태	정형외과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연	외과	김효준	물류팀	박은수	본관10층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황의순	진료협력팀	김란	본관5층	김영일	임상연구지원팀	김희원	신경외과	박은영	내시경실	송주영	본관7층
황인자	간호국	김령	영양팀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김희나	주사실	박은영	인공신장실	송현수	시설팀
10만 원 미만		김명환	영양팀	김영진	신경외과	나소정	수술실	박은형	고객지원팀	신명희	치과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훈	물류팀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응범	비상계획계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강다운	본관9층	김미라	성형외과	김육원	영상의학과	남순영	본관5층	박점현	본관11층	신수지	수술실
강문주	본관11층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노광규	인사총무팀	박주은	분만실	신정미	영양팀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지경	영양팀	신정은	인공신장실
강석범	핵의학과	김미화	고객지원팀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노옥석	동관7층	박지애	QI팀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김미희	본관7층	김은희	수술실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신현주	인공신장실
강신창	핵의학과	김민아	본관10층	김인호	약제팀	류종백	시설팀	박진옥	보험심사팀	신혜민	내시경실
강영의	본관6층	김민정	수술실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명영숙	원무팀	박진희	인공신장실	심규진	본관7층
강운성	의무기록팀	김민정	수술실	김재희	영상의학과	모지은	소화기내과	박진희	인사총무팀	심규형	영상의학과
강은미	본관10층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문미영	2층내과	박찬남	종합검진센터	심요라	보험심사팀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민희	2층내과	김정민	본관10층	문상희	제3중환자실	박춘아	수술실	안대웅	
강지원	기획팀	김백수	동관7층	김정숙	고객지원팀	문영민	영상의학과	박현정	피부과	안명현	병리과
강혜영	영상의학과	김병숙	원무팀	김정안	본관7층	문재봉	시설팀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안미경	영양팀
고희경	2층내과	김보미	신경외과	김정연	외과	문정희	본관9층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안삼순	2층내과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상미	본관10층	김정희	영양팀	문한솔	외과	방민주	제3중환자실	안석태	영상의학과
공지현	심장센터	김상훈	약제팀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문희애	본관6층	방성주	대외홍보팀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상희	본관11층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박경림	보험심사팀	방지훈	신경외과	안신영	본관9층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안유정	제3중환자실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조규선	영상의학과	하동근	비뇨기과
안은중	의료정보팀	유선정	이비인후과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현주	본관7층	조은영	영상의학과	하은영	약제팀
안은진	2층내과	유숙	병리과	이새롬	본관11층	이현주	원목실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하지윤	원무팀
안이슬	본관10층	유영미	본관7층	이서윤	본관9층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한미경	동관7층
안정미	수술실	유영안	중앙공급실	이선영	본관6층	이혜정	수술실	조현일	시설팀	한상운	원무팀
안정은	본관11층	유정자	본관7층	이선화	본관9층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환영	수술실	한수진	본관10층
안정현	이비인후과	유주량	본관5층	이선희	원무팀	이호용	영상의학과	지미경	보험심사팀	한승희	수술실
안혜옥	본관20층	유지학	인사총무팀	이성모	물류팀	임경순	신경외과	지은아	산부인과	한아영	수술실
양길녀	본관7층	유현영	물류팀	이성미	이식센터	임다현	본관10층	지혜정	의료정보팀	한정연	성형외과
양명화	간호국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진춘희	영양팀	한현남	영양팀
양미영	영양팀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수연	고객지원팀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천경희	의료정보팀	한현정	보험심사팀
양수용	중앙공급실	윤미영	본관8층	이수진	수술실	임은자	이비인후과	천영복	물류팀	함명자	보험심사팀
양은주	낮병동	윤선미	영양팀	이숙	고객지원팀	임인자	수술실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허정현	심장센터
양현	간호국	윤선애	본관7층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정연	고객지원팀	천은선	외과	허지선	본관7층
양호선	약제팀	윤선희	영양팀	이순자	본관5층	임주아	정형외과	최다울	신생아실	허지영	병동서무
엄기숙	영양팀	윤아름	본관10층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지영	영양팀	최문정	본관5층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엄혜정	수술실	윤인숙	본관10층	이연주	정형외과	임화영	비뇨기과	최미옥	제3중환자실	허효숙	소화기내과
여미진	본관10층	윤정희	약제팀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현순희	소화기내과
여은주	본관6층	윤지선	본관6층	이영주	2층내과	장윤주	약제팀	최선미	인공신장실	홍대영	인사총무팀
오금복	정형외과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에린	제3중환자실	장정아	육아지도실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홍민영	비뇨기과
오기향	비뇨기과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윤미	심장센터	전경신	신생아실	최성은	교육연구팀	홍숙의	병동서무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전효선	영상의학과	최세연	원무팀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오연이	영양팀	윤화정	인공신장실	이은경	인사총무팀	정경은	본관5층	최소담	영상의학과	홍은자	내시경실
오영숙	고객지원팀	음희재	내시경실	이은명	마취후회복관리실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순애	인공신장실	황미향	영상의학과
오유선	본관9층	이강연	인사총무팀	이은애	심장센터	정대천	원무팀	최승희	본관10층	황성환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은주	기획팀	정선주	본관7층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황성희	정형외과
오정남	영양팀	이경철	기획팀	이은형	본관6층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영선	인공신장실	황영순	본관5층
오정숙	재활의학과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수정	본관5층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오지현	주사실	이관석	원무팀	이정애	병리과	정유정	본관17층	최은영	본관8층	황준호	
오진영	2층내과	이규택	신경과	이정은	고객지원팀	정은영	수술실	최재범	원무팀	황희수	영상의학과
오홍석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정인	당뇨센터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정연	대외홍보팀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오화경	수술실	이나리	본관10층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임중	응급의료센터	최정훈	2층내과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이나영	수술실	이정화	신경과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종석	영상의학과		
옥상열	홍보팀	이두중	핵의학과	이정화	이비인후과	정정미	본관10층	최종은	보험심사팀		
우순희	수술실	이명숙	병리과	이정희	본관8층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진실	본관5층		
우정미	고객지원팀	이명주	약제팀	이종열	치과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창순	동관7층		
원혜정	부속실	이미경	영양팀	이주영	비상계획계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현구	본관8층		
원홍석	인사총무팀	이미란	신경외과	이주현	본관6층	정훈	의료정보팀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위영현	약제팀	이미자	본관11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정희숙	QI팀	최혜용	고객지원팀		
유고은	본관10층	이미정	본관10층	이준욱	의료정보팀	조경숙	인공신장실	최희영	QI팀		
유미화	물류팀	이미정	인공신장실	이지현	심장센터	조광희	본관9층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유병호	제3중환자실	이민지	본관5층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조구성	영상의학과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Hanyang Calendar

3 March

2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세상이 빙글 나도 빙글, 흔한 어지러움 질환 - 이비인후과 정재호 교수
6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30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병의 개요 및 진단, 치료, 합병증 & 식사요법
13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30분	신관 2층 당뇨센터	혈당 측정, 저혈당 예방, 발 관리 & 구강관리
20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30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병의 개요 및 진단, 치료, 합병증 & 양물요법
20	화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하천갑 앙상블
24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루게릭병의 증상 관리 - 신경과 박진석 교수
26	월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후 12시	서관 4층 다학제 진료실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27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30분	신관 2층 당뇨센터	혈당 측정, 저혈당 예방, 발 관리 & 운동요법

4 April

3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30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병의 개요 및 진단, 치료, 합병증 & 식사요법
6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최신 위암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 외과 김민규 교수
10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30분	신관 2층 당뇨센터	혈당 측정, 저혈당 예방, 발 관리 & 구강관리
17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30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병의 개요 및 진단, 치료, 합병증 & 약물요법
24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30분	신관 2층 당뇨센터	혈당 측정, 저혈당 예방, 발 관리 & 운동요법
24	화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선한제자
28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루게릭병의 진단과 치료 - 신경과 김승현 교수
30	월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후 12시	서관 4층 다학제 진료실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 당뇨 건강강좌 문의: 당뇨센터 031-560-2156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기금 모금 캠페인’

Sharing is happiness

생명 사랑 나눔의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한양대학교의료원 이웃사랑 사회복지기금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공제 ·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용도** : 취약계층 환우의 의료비 지원
- ▶ **참여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
- ▶ **참여방법** : 온라인(www.hyumc.com) → 사회복지기금 클릭 → 약정서 다운로드 (작성 후)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구 분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후원계좌	100-031-815870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병원)	100-031-811976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연락처	02) 2290-9440	031) 560-2986
팩스	02) 2290-9439	031) 553-5118
이메일	ss9708@hyumc.com	kimyim@hyumc.com

*사회복지기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3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항락	금, 토(4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금	간질환
	이강녕	화, 토(5주)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월, 화, 토(5주)	화, 목	담낭, 담도, 췌장
	김은진	수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재하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박진화	토	월,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임대현	금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중기세포치로, 협심증, 고혈압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
	임영호	수, 금, 토(3주)	월, 수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박진규	월, 목, 토(1주)	화,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허란	화, 토(5주)	월, 목, 금	심장질환
	김근호	월, 수(1주),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1,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내과 2290-8300	박준성	월, 목, 토(3,5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이준한	목, 토(1,2,4,5주)	월	일반 신장내과질환
	안유현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내분비대사 내과 2290-8300	최웅환	월-수, 금, 토(1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3,5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토(3주)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목, 토(2주)		폐결핵, 폐암, 폐렴
	김상현	화, 금, 토(1주)	월, 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화, 수, 토(4주)	월, 목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전로, 간질성폐질환
호흡기 내과 2290-8302	이현	목, 금, 토(5주)	화, 수,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내과계 외과계	손장원 임현영	화, 수, 금 월-금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목, 금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증,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김봉영	화,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4주)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김남수	수, 목, 금, 토(3주)	화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 토(2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수, 목, 토(1주)	월,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진섭	월, 금	화, 목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화, 토(5주)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로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	월, 수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 금(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김희진	화▲, 금, 토(2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김영서	월, 화, 토(4,5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오기욱	월▲, 금▲, 토(1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2주)	목,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목, 토(3주)	화, 수,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노성원	월, 금, 토(1,2주)	월, 목	중독장애, 노인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민아란	월, 수, 토(5주)	금	소아정신의학
	김강률	목	화, 목	소아정신의학
	노영석	월, 화, 목, 토(2주)	월, 목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피부과 2290-8434	고주연	화, 수, 금, 토(4,5주)	수, 목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김정은	월, 수, 토(1,3주)	화, 수,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화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토(5주)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토(1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3주)	월, 목 (암모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갑상선 로봇내시경수술
	하태경	화, 토(4주)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해 외 연 수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김영학	화, 금	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흉부외과 2290-8461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장효준	월, 수, 금		일반 흉부외과질환
	이준호	월, 목	목, 금	일반 흉부외과질환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토(1주)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목, 금	화	견관절 클리닉, 팔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해 외 연 수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화, 토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구자욱		수, 금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 2018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월, 수, 토(1주)	금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4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토(2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최규선	금, 토(3주)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토(2, 4주)	화	하지재건(미세수술), 당뇨발, 안면외상, 미용성형(코), 육창
	박성오	월, 토(3주)	수, 금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임수연	월, 토(1주)	수, 목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수부외상, 만성창상, 지방흡입
	윤정수	수, 토(5주)	월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최중섭	월, 수, 토(5주)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 3주)	화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 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
	이원무	목, 금, 토(2, 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엄정민	금, 토(2, 4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호진	월, 수, 토(5주)	목, 금	일반 산부인과
안과 2290-8570	엄기방	월, 수	목, 내장, 백내장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임한웅	금, 토(4주)	월, 화, 금, 토(구리)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준	금, 토(1주)	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 망막증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토(3주)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화, 금, 토(1주)	수,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화, 수(구리)	월, 목, 화, 수(구리)	후두음성, 인후두역류, 소아이비인후과, PITA편도수술, 갑상선암, 두경부암
	변하영	수, 목, 토(4주)	월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김인식	토(5주)	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박해영	월, 수, 금	수, 금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김용태	화, 목	화, 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박성열	월, 수,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윤영은	월, 화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조정기	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정재훈	토(1, 2, 3, 4, 5주)	목, 금		일반 비뇨기계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방사선종양학
	박혜진	월, 화, 목, 금	월, 화	방사선종양학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목	턱알골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목, 금	턱알골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심광섭	화, 금	수	턱알골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박훈기	월	목	
	황환식	화	금	
	박계영		월, 수	
가정의학과 2290-8738	하태경		화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박계영		화, 수	건강증진의학
	송재철	월-금, 토(3주, 격달)	월, 수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이수진	화, 금, 토(3주, 격달)		근골격계질환, 사지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성인형소통,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토(3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2, 4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토(2주)	월, 화, 목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월, 화, 수, 금, 토(3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쇼그렌병
	최찬범	월, 수, 금, 토(3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배제트병, 건선관절염, 혈관염
	조수경	월, 수, 금, 토(3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배제트병
	강주연		목,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형영	수, 금, 토(3주)	월, 화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남보라	토(2, 4주)		일반 류마티스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안가영	월, 화, 목, 토(1주)	수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금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통증의학과 2290-9216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심재철	월, 수, 목, 금	월(2, 4주)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의학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목	주관절, 화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건관절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화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윤호주	화	월, 화,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토(2, 4주)	목, 금	가정의학
	김정현	월, 화, 목, 금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연환	화, 금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1644 - 9118

<http://guri.hyum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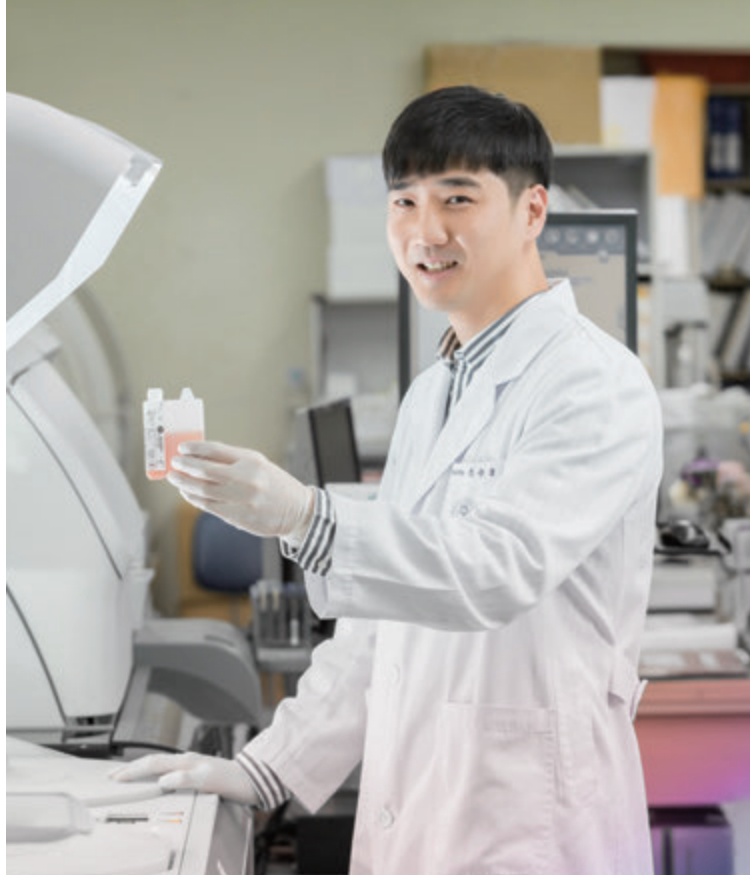
* 2018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소장, 대장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박찬혁	목, 토(3,5주)	수,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정재윤	수, 목, 토(1주)	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병증, 간암),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김순길	월, 화, 목, 금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박환철	수, 목, 토(1,3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정훈	월, 수, 토(2,4주)	수,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이응구	화, 토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월, 목,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이주하	화, 수, 토(1,2,4주)	월, 목	특발성 부종, 만성콩팥병, 고혈압, 전해질이상질환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금,토(1주)	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유성훈	월,금,토(3,4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류마티스내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이혜순	월, 수▲, 토(3주)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목,금,토(2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권혁희	화, 토(1, 2, 3주)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유현승	목, 토(1-5주)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김태형	월,수,목,토(4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호흡기내과		문지용	해 외 연 수		
		박태선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여유미	토(2주)	수,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중환자실	내과계	여유미	월~금	월, 화, 목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외과계	오형석	월~금	화, 목, 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토(2,4주)	월, 수,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원영웅	월,수,금,토(1,3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김창렬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수, 금, 토(3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토(1주)	화, 목	소아신경질환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금	소아심장질환
		최영진	월, 목, 토(4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강하나	월, 목, 토(2주)		신생아학
		강은구	수, 토(5주)	월~수, 목	소아내분비, 성장
신경과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2,4주)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혁성	수, 토(1, 3, 5주)	월,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박용천	화,토(3,5,7주),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정신건강 의학과		김대호	화, 목, 토(1주)	월, 화, 금 (클리닉)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최준호	월,수,금,토(3주)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신경영양학
		이호선	월,화,토(2, 4주)	수, 금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신경외과		김충현	금	화,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김재민	수, 목, 토(2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월, 토(1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3,4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화,목,금,토(5주)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오형석		월, 수	뇌혈관질환, 일반 신경외과
흉부외과		노선균	수, 금	화,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정맥루,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월, 수,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예수	수, 금	월	퇴행성 및 골다공증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화, 목, 토(3주)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해 외 연 수		
	양재혁	목, 토(4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송중훈	화, 토(1주)	월, 목	견관절, 주관절, 외상
	류기영	월, 화, 목, 토 (2,4주)	화	조기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산부인과	정언석	수, 금, 토 (1,3,5주)	월, 수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암, 자궁암),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최승석	월, 금, 토(5주)	수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성형외과	이장현	화, 목, 토(2,4주)	화,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토(1,3주)	월, 금	안면외상, 욕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외과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흥기	수, 금, 토(1주)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담체질환
	박현겸	목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토(3주)	목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김민규	화, 금, 토(5주)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김형석	월, 목, 토(2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토(4주)	월, 수, 금	대장항문
안과	조희운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2,4주)	화,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임한웅	토(3주)	화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신용운	월, 금, 토(1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이민지	화, 수, 토(4주)	금	사시, 소아안과, 성형안과
	홍은희	목, 토(1,5주)	월, 목	신경안과, 사시, 일반안과질환
피부과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서현민	화	수, 목, 금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토(1주)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토(4주)	수	부비동염, 비종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폴이, 코성형
	지용배	해 외 연 수		
	정재호	금, 토(2주)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박우성	목, 토(3주)	화, 목, 금	비부비동염, 비종격 만성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송창면	화,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최홍용	화, 목	수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비뇨의학과	문홍상	수, 토(3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김규식	월, 토(2,4,5주)	목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장성호	월, 수▲, 금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재활의학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소아재활클리닉, 근골격계재활(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손상, 뇌신경 재활)
	박재현	화, 금	수▲, 금	일반 재활의학과질환
	박원희	월, 목, 토(2,5주)	수	보청,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치과	김윤영	화, 금, 토(1,3,4주)	월, 화, 목, 금	보청, 임플란트, 틀니, 미백
	심재환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수술

저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안전동력입니다

AM 3:00

김승훈 임상병리사의 시간

언제나 안심하고 믿음 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만드는 따뜻한 동력이 되겠습니다.

오후 5시 반 교대근무를 시작으로 야간 환자를 위한 임상병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혈액 샘플이 도착하는 새벽 3시, 고요한 병실 사이로 응급검사실이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응급실과 병동에서 내려오는 혈액 샘플 검사부터 질환의 단서 찾기, 분석에 이르기까지 의학적 검사를 수행 중입니다. 밝아오는 아침,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오늘도 한양대학교병원의 새벽시간을 듬직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